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원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상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조작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금전적 책임을 지워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12월 24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지만 ‘온라인 입틀막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됐다하여 ‘7·7 입막음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 그리고 여권 지지층에서는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과 언론, 야권 지지층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헌법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 정보근절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시행과 동시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위헌성 논란이 뜨거운 게 사실이다.

이 법은 무엇보다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Vagueness Doctrine)’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인지, 어떤 표현이 ‘증오심 조장’이나 ‘선동’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극히 모호하다. 법률이 불명확하면 국민은 처벌이 두려워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同人)의 공원준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2의 2호에 대한 ‘위헌확인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상 유통이 금지된 불법 정보 중 하나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공 변호사는 단어들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표



### 온라인 ‘정보통신망법’ 7월 7일 시행

## “쉬쉬 하라니까” 입 틀어 막았다

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판단한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보도가 2회 이상 해당 될 경우는 최대 10억 원의 행정 과징금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물리도록 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 Principle of Proportionality)’위배라는 지적을 받는다. 예컨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비방 목적 필요)으로 법원에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개정 법률에 따라 1억

5,000만원 까지 물어야 한다.

이미 각종 형사처벌 및 민사상 일반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5배의 가중 배상과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3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온라인이나 출판물 등에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를 퍼뜨려 타인에게 명예훼손을 끼치는 행위와 관련, 정보통신망법 말고도 ▲형법 ▲공직자 선거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이밖에도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을 강하게 처벌하는 특별법들이 존재한다. 군형법(상관 모욕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모욕죄)이 그것



무엇이 허위 조작 선동인지  
기준 모호…표현자유 침해

이다.

이러한 처벌 조항은 언론사는 물론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블로거 등이 1차 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언론이나 유튜버, 블로거는 권력기관이나 막대한 자본력의 경제주체가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소송을 걸겠다는 태세만을 보여도 보도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즉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면서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 보도나 공익적 문제 제기까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적 감시 대상인 정치·자본 권력이 소송으로 언론 보도를 사전 봉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의 문제점은 또 사법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예컨대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정보의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플랫폼 기업은 과징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 의혹 제기나 비판 글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선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차단(과잉 삭제) 함으로써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과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편 개정 법률은 법문상 과거 게시물 자체를 처벌하는 소급 규정은 없다. 다만 시행 이전 게시물이라도 시행 이후까지 삭제·차단 없이 유지되고,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가 없을 경우 ‘시행 이후의 방치 행위’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해석 여지가 있다. 소위 ‘계속유통’ 개념이다.

이러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미국 국무부 역시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인과 언론사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서옥식(본회 부회장·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비판보도 등 소송 대상에  
‘사전검열’ 유사한 결과도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최대 4,700조원을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최근 발표했다. 반도체 생산 거점은 서남권에, 퍼지컬 AI는 대구·경북권과 새만금에 조성하고, AI 데이터센터는 전국에 권역별로 분산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를 두고 갖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호남권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다. 지지율이나 표를 의식한 '정치행위'란 비판이다. 환경단체들도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프로젝트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4,700조원이란 천문학적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반도체 프로젝트의 핵심인 용수와 전력은 어떻게 조달할지, 단지 조성에 따르는 환경 파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은근히 한국 기업의 대미 반도체 추가투자를 바라고, 압박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도 신경이 쓰인다.

글로벌 1,2위 반도체 메모리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4,70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자금이 투자된다.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챙기고, 청와대 안에 직할 담당관도 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는 대도약을 위한 3대 축."이라며 "이를 하나로 묶어 속도감 있게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 대통령 등 정부·청와대 관계자와 재계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3대 프로젝트의 핵심은 풍부한 전력을 기반으로 '두뇌'인 반도체와 '지능'을 가진 신체'인 퍼지컬 AI, '생각의 창고'인 AI 데이터센터를 유기적으로 결합,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라 확대된 투자 여력을 미래 먹거리 육성에 투입하는 동시에 수도권 중심 개발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첨단산업의 전국 확산을 함께 추진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이중 핵심은 호남에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반도체가 국가 전략산업인 점을 고려해 용인 등 기존 수도권 클러스터 조성은 속도를 높이고, 전 세계 AI 투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후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각도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요란

자 확대로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서남권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서남권에는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 수도권에 이은 제2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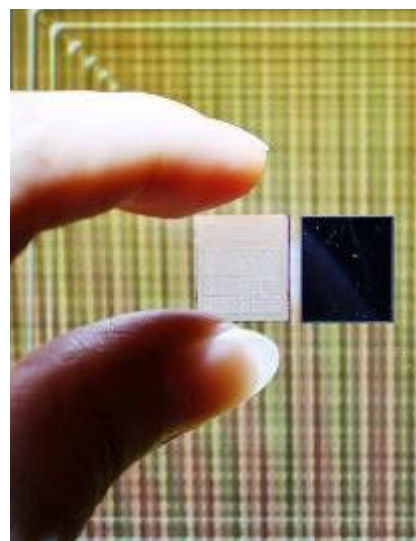
정부가 반도체 제조 및 인공지능(AI) 강화를 위해 향후 몇 년 동안 대대적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외신들은 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영국 BBC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한국 서남부 호남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반도체와 물리적 AI, AI 데이터센터는 큰 도약을 위한 3가지 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국제보도 채널 프랑스 24는 “한국이 향후 몇 년간 새로운 제조 허브와 AI 데이터센터에 국내 총생산(GDP)의 3분의 2가 넘는 약 1조 2,000억 달러(약 1,851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는 급증하는 AI 수요를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에 소외돼 있던 지역을 개발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 24는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 이전을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 세종대 김대중 교수의 말을 인용한 후 “이는 결국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AI시대의 필수적인 AI 인프라 구축에 최소 8,800억 달러(약 1,350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들을 ‘국민 영웅’이라고 칭했다”면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메가프로젝트가 과

반도체·퍼지컬AI·데이터센터 구축  
4700조원 천문학적 규모 국가 대개조  
李대통령 직접 챙기고 靑직할담당관도

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국내 언론이 많다. 무엇보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물과 전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최근 한 칼럼에서 “영산강 물 부족, 여수산단 공급도 우려”란 제목의 ‘팩트 체크’에서 반도체 공장의 핵심인 용수문제를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이 글에서 “정부는 ‘호남에 물 충분하다’는데 영산강 자체 용수 공급은 27%에 그쳐 나머지는 섬진강 물을 끌어와 사용해야 할 판”이라고 언급했다. 이 신문은 이어 “반도체 만들려면 깨끗한 물은 필수인데, 영산강 수질은 5대강 중에서 가장 나쁘다”고 보도했다. MBC도 ‘뉴스데스크’에서 “물과 전력은 충분한가”라고 묻고 “수질개선 비용과 공장까지 대형 수로를 까는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MBC는 이어 “반도체 공장 4기를 가동하려면 6.3GW의 전력이 24시간 끊기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SBS도 ‘8시 뉴스’를 통해 “하루 65만 t 공업용수 어디서?”란 제목으로 “보성강 댐 같은 발전 댐은 물 사용 용도전환이 용이할지라도, 나머지 댐들은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등 수요자가 정해져 있어 전환이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KBS도 ‘뉴스9’에서 “호남에만 팹 4기...전기·물 안정적 공급 가능?”이라는 앵커멘트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와 농업용수 인프라 등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호남 투자를 비롯해 총 4,700조원



SK하이닉스가 만든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 실물. <연합뉴스 제공>

의 거액 조달이 가능하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오대영 JTBC 앵커는 최근 ‘뉴스룸’ ‘투자금 어떻게?’라는 멘트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금액은 각각 2,000조원 이상이고, 모두 합하면 4,700조원이 훌쩍 넘는데,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고 언급했다. 김종민 MBN 기자도 ‘뉴스7’ 스튜디오에 출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과 주가 고공행진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초호황)이 당분간 이어진다는 전망 하에 나온 수치들”이라면서 회의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계속 된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지난 6월말을 기점으로 슈퍼사이클이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메모리 투톱(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돈·물·전력 조달 ‘3難’ 빨간불

野 “호남권 지지율·표 의식한 정치행위”  
환경단체 “자연 파괴...계획 백지화해야”  
“지역격차 해소” 무리...백년대계 세워야



AI 로봇이 춤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이렇다간 장미빛 일색인 양사의 경영 실적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4,700조원이란 천문학적 자금 마련이 쉽지 않게 된다.

환경 파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가 탄소 중립목표를 무력화하는 등 환경을 파괴할 것이란 우려가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는 최근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는 거창한 수사로 포장됐지만, 이번 발표는 기후한계와 탄소 중립 목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기업투자에 필요한 전력, 용수, 부지, 규제완화에 집중하면서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기후·환경적 책임은 사실상 비워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라도 ▲재생 에너지 사용

의무화(장기 100% 목표) ▲비수도권 분산 및 지역 에너지 우선 소비 ▲전력사용효율(WUE) 규제 ▲국가와 지자체 주도의 엄격한 인허가 및 공적 관리체계 전면 도입 등을 주장했다.

녹색당은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백지화하라”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물 먹는 하마’이자 ‘전기 먹는 하마’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광활한 용지가 사용되며,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를 필요로 한다”며 “누군가의 삶터가 수탈되고 마을이 매몰되며 집 앞에 송전탑이 쏘아는 희생의 대가로 대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는 호남을 비롯한 전국 국토를 반도체 AI 대기업에 헌납하는 계획”이라며 “물과 땅이라는 공공재를 시민에게서 수탈해 대자본의 사익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당은 이어 “반도체 산업은 기본적으로 ‘사이클 산업’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 및 불균형에 따라 불황과 호황이 주기적으로 교차할 수밖에 없는데 마냥 낙관적인 전망으로 반도체 산업에 국가가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부·여당이 ‘호남 비하’로 규정한 데 맞서 “호남의 핵심 인프라 여건상 투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권이 이를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

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역으로 거론된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의 자본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사전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이인선 의원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치 논리로 결정돼 국가 산업경쟁력을 해친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이 이미 전자산업 기반과 첨단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PK(부산·울산·경남) 의원들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투자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들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입지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호남 투자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강민국 의원은 “정부의 이번 발표가 되레 호남 지역의 소외감을 키우며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을 ‘정권 외압’으로 규정하고 총 공세를 퍼붓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며 “반도체 호남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 소외된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

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 토지가 있다”며 “용수는 물론 풍부한 재생 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 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수와 전력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에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계획은 앞당겨 신속히 추진하되, 동시에 제2의 집적단지를 초고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 소외에 따른 고통과 설움을 겪은 호남에는 지금까지의 이중 차별이 예상치 못한 큰 기회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도 “반도체 인재가 호남까지 안온다”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를 보고 “기사에 분노한다. 모욕감까지 느낀다”며 “이는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호남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데, 수도권 관점의 중앙 언론에서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도했다는 비판이다. 그는 이어 “전남대·조선대·지스트에너지공대, 그리고 수많은 고등학교들이 이공계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데 이런 지역을 향해 ‘반도체 인재가 안온다’는 표현을 쓴 건 취재가 부실하거나, 의도가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물론 ‘경제안보’의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 전반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를 지역발전과 연결하려는 정부 정책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환경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영향 검토 없이 오직 성장과 지역격차 해소라는 논리만으로 강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발표된 메가프로젝트의 규모와 영향력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천조원이라는 거대한 숫자 뒤에는 나라와 국토를 되돌릴 수 없이 황폐화시킬 수 있는 무수한 문제들이 잠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원칙과 기준이 선행돼야 한다. 전력 생산지, 송전선 경과지, 용수 공급지, 환경 피해 지역까지 포함해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가 간과 된다면 지역 균형을 이루겠다는 추진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 정책이 도리어 지역에 피해를 전가하고, 식민화하는 역설적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정치권은 이번 프로젝트를 실리를 앞세운 정치논리로 해석하지 말고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 대 개조사업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조희곤(본회 이사)



국가 미래 3대  
메가 프로젝트

# 인재에 달렸다

## 생산시설 이전으로 클러스터 구축 어려워

세계는 지금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다. 기술을 먼저 확보한 국가가 시장을 선점하고, 인재를 먼저 키운 국가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는 시대다.

세계는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의 문을 열고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하여 산업 경쟁력 회복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미래 기술 패권을 향한 추격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만과 일본 역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자본과 자원의 규모로 평가됐던 국가 경쟁력이 기술 혁신과 인재 역량,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시스템으로 전환됐다. 기술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다. 반도체와 퍼지컬 AI, AI 데이터센터가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국가적 승부수로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수십년 동안 세계 산업 지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이다.

첫째,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실제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난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동진의원 주최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분석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질문은 반도체 산업이 전력과 용수, 인재와 산업생태계가 한 치의 오차 없이 맞물려야 하는 대표적인 첨단산업이라는 점이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장을 짓더라도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필요한 인재가 모이지 않으며, 연구개발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성공 조건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도체 산업은 공장부지만 확보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 전력공급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비밀이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전력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전력은 단순한 기반 시설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에너지 자원이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생명이라서 순간적인 전력 불안정도 생산 차질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단순 예측이 아니라 확고한 학문적 이론에 가깝다.

둘째, 용수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초순수는 산업의 혈액과 같다. 아무리 첨단 공장을 건설해도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생산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용수는 발표된 숫자가

역시 지금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해 온 것은 산업생태계의 힘으로서 누가 더 큰 공장을 짓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누가 더 강한 생태계를 만드느냐의 싸움에 성공이 달려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은 결국 '사람의 문제'로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분야는 '인재'였다. 오늘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수십년 동안 축적된 연구자와 엔지니어, 현장 기술자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국회 세미나에서 필자는 양측은 한편에서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입법·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인 반면, 다른 한편은 입지 선정 과정의 객관성, 전력·용수 등 인프라의 실현 가능성, 투자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증하자는 입장차가 감지됐다.

세계 반도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

## 사람·기업·대학 3박자 연결 초혁신공간 돼야

고, 기존 메모리 중심 경쟁을 넘어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분야까지 종합적인 경쟁력이 요구되는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은 치밀하게 준비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경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큰 투자를 하는 국가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중요하고도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러한 메가프로젝트는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의 염려에 답해야 한다.

셋째,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서 시작됐다. 오늘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성공은 수십년 동안 축적된 연구자와 엔지니어, 현장 기술자들의 노력 위에서 만들어졌다. 인재 육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가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와 우수 인력구조를 고려할 때, 생산 시설만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클러스터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산업 중심지는 단순히 공장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다. 사람과 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기술과 자본이 서로 연결되는 혁신 공간이라야 한다. 따라서 국가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발표된 계획의 크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에 의해 좌우된다.

대만의 반도체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대한민국

고, 기존 메모리 중심 경쟁을 넘어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분야까지 종합적인 경쟁력이 요구되는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은 치밀하게 준비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경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큰 투자를 하는 국가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중요하고도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러한 메가프로젝트는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의 염려에 답해야 한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만을 내세운다는 그런 인상보다 정부가 미래 국운 개척에 치밀하고 신중한 설계로 각자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서 빈틈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한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생각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다.㉞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만을 내세운다는 그런 인상보다 정부가 미래 국운 개척에 치밀하고 신중한 설계로 각자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서 빈틈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한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생각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다.㉞

류종현(본회 편집위원·전 MBC워싱턴특파원)

고, 기존 메모리 중심 경쟁을 넘어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분야까지 종합적인 경쟁력이 요구되는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은 치밀하게 준비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경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큰 투자를 하는 국가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중요하고도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러한 메가프로젝트는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의 염려에 답해야 한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만을 내세운다는 그런 인상보다 정부가 미래 국운 개척에 치밀하고 신중한 설계로 각자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서 빈틈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한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생각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다.㉞

류종현(본회 편집위원·전 MBC워싱턴특파원)



SK파워텍 품질팀 구성원이 6인치 웨이퍼 제품 출하 직전 이를 검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생태계 강화에 집중...최고 경쟁력은 기술인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김보미

##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의장 출마의 辯

“지금 민주당은 공정, 민주, 세대교체, 미래, 청년이 없는 5무 정당이다...민주화 운동이 정치를 40년, 50년 독점할 권한이 없다. 이 AI시대에, 화염병과 짱돌을 들던 분들이 아직도 정치의 주축이다. 또 686, 786, 886까지 갈 거냐, 미래를 준비할 정당이 과거에 대한 복수에 매몰돼 있다. 기성세대를 비판했던 젊은 피가 이제는 60대의 ‘고인 물’ ‘기득권’이 되어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공정과 민주가 없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686의 정계은퇴를 촉구한다.”

# 與 당권 혈투...국민 외면 私慾 활개

더불어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친 이재명계와 친 정청래계가 혈투를 넘어 사생결단의 내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으로서 정책논쟁이나 폭등한 부동산과 세계 최상급 물가(특히 식음료) 등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시대착오적인 ‘적통’시비와 과거 정치행적을 들춰내는 ‘파묘’에 ‘자기중심 정치’, 더 나아가 왕조시대에도 있을 ‘역적’ 극언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막가파식 선거전으로 정치풍토를 퇴행시키고 있다. 절대 다수당으로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고 국회를 운영해온 모습 그대로다.

이런 살벌한 전장의 중심엔 686이 버티고 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는 인식과 민주주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당 대표에 출마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세 후보 모두 686이다. 김민석은 1964년생이고, 정청래와 송영길은 1965년생이다.

세 후보 모두 1980년대 대학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출, 권력과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너서클의 핵심인물로 성장했다. 모두 60대다. 김민석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송영길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오늘날 686은 미디어의 맥락에 따라 ‘민주화 유공자’, 또는 ‘기득권’ ‘고인물’ 등의 엇갈린 인식으로 정치권에선 평가되고 있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20대 대학 생활을 인간다운 삶의 원천이 되는 인문학 지식 공부보다 민주화 투쟁을 위해 아스팔트 거리에서 화염병과

짱돌로 싸우는 투쟁에 전념해 왔다. 그래서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시기를 투쟁의 경험으로 채웠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들은 자신의 이념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싸우는 데는 유

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을 제쳐놓고 자기들만의 잔치로 출발했다. 전당대회 직전 이전투구 속에서도 후반기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서두른 것

던 분들이 아직도 정치의 주축”이라고 686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외침은 이어진다. “686, 786, 886까지 갈 거냐, 미래를 준비할 정당이 과거에 대한 복수에 매몰돼 있다. 기성세대를 비판했던 젊은 피가 이제는 60대의 ‘고인 물’ ‘기득권’이 되어 일방적인 국회운영과 공정과 민주가 없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686의 정계은퇴를 촉구한다.”

김민석은 20대 때 “기성정치가 청년을 좌절시켰다.”고 말했다. 정청래는 30대 때 “청년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인으로 성장한 후 정치사회 논쟁에서 때로는 세대갈등을 부각시키는 표현으로 젊은 세대의 반감을 샀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선 청년대표 최고위원 자리를 아예 없애버렸다.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 686에 대한 20, 30세대의 혐오감은 다른 세대들보다 높게 나온다. 데모하고 학생 운동했다는 것을 훈장처럼 내세우지만 자신들의 출세에 이용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뭐가 있는나는 것.

공천권이 걸린 당 대표 선출에만 집착하는 집권여당의 전당대회를 국민은 불안한 눈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민생도, 민주주의도 간 데 없고 그 빈자리에 나부끼는 것은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과정이다.☞



김 화

본회 이사 · 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적통 파묘 역적 등 극언 난무...퇴행 점입가경

## 鄭金宋 686 기득권 가관...새세대 진입 봉쇄

능하지만 이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정치도 그렇게 한다. 자신들의 이념과 주장은 선(善)이고 상대방의 그것은 악(惡)이다. 따라서 투쟁을 통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멸해야 한다는 박제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 여의도 정치뿐만 아니라 당 대표 선거전에서도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정치를 투쟁의 제로섬게임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 협상과 배려를 통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런데도 정청래 전 대표는 야당대표와 악수까지 거부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의 절대다수의석을 도구로 삼아 폭주를 감행하고 있다. 선출된 권력은 무소불위로 생각하고 행정부·입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려고 겁박하고 있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분명히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와 제동의 신호를 보냈다. 민주당은 선거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만 하고

은 공소취소 특검, 보완수사권 폐지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필리버스터 축소법안까지도 제출할 태세다.

8·17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이처럼 당 대표 선거가 혈투가 된 것은 2028년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회자된 ‘비명횡사’의 학습효과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적통’ 논쟁과 과거 정치행적을 파묘하듯 파헤치는 불쌍사나운 짓들과 계엄해제 국회 결의에 불참한 ‘갑기약’ 같은 사소한 감정싸움까지 증폭됐다. 공당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추태의 연속이었다.

686의 정치추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당 대표 선거에 전남 강진군의회의장을 지낸 김보미(36)씨가 세대교체를 요구하며 출마했다. 그녀는 “지금 민주당은 공정, 민주, 세대교체, 미래, 청년이 없는 5무 정당이다.”며 “민주화 운동이 정치를 40년, 50년 독점할 권한이 없다.

이 AI시대에, 화염병과 짱돌을 들

# 보수언론 ‘野 편파 보도’에 독자 어리둥절



**이도선**  
본회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여럿이 악한 사람을 괴롭히는 짓을 일본말로 ‘이지메(いじめ)’라고 한다. 우리말로 ‘집단 괴롭힘’ 정도로 해석된다. 이지메는 일본의 고질적 사회 병폐로 알려졌으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목도되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흔히 학교 폭력 형태로 사회 문제가 되지만 요즈음은 계층과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마구 터진다. 그중에서도 제1야당 대표로서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가해지는 이지메는 가관이다.

장 대표 이지메의 주범은 언론이다. 그것도 좌파 성향 매체들 보란 듯 우파 매체라는 조·중·동이 최선봉에 나선 게 쏘아잡다. 조·중·동의 신문 기사·사설·칼럼은 장 대표 퇴진을 주장하는 얘기들로 넘쳐나고, 종편 뉴스와 해설은 진행자든 패널이든 온통 장 대표 반대파만 나와 그를 집중 공격한다. 국민의힘 쪽 패널들도 그런 부류만 부르기 때문에 장 대표는 자기 입장을 변변히 해명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꼴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전직 의원은 MBC라디오 패널로 나와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약을 드링킬할 수도 없는...”이라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막말을 내뱉었다.

당원 다수가 장 대표를 지지하는 데도 조·중·동은 ‘민심과 유리된 당심’이란 희한한 논리로 자신들의 억지를

포장하며 애먼 당원들을 극우로 몰아세운다.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민심마저 멋대로 왜곡하는 오만방자의 끝판왕이다. 하긴 시도 때도 없는 탄핵과 특검으로 정부를 마비시켜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맞서 비상계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 張대표 죽이고 한동훈 살리기 노골적 언론 본령 외면한 억지민심 강요 안돼

을 선포하자 다짜고짜 내란몰이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과 짝짜꿍해 현역 대통령 탄핵에 또다시 앞장선 그들이니 새삼 실망할 것도 없다.

좌파의 촛불 집회는 연일 대서특필하고도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 일대를 뒤덮는 태극기부대는 극우라며 한 줄도 안 쓴다.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부정 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줄기차게 외치는 청년들의 울공(울림픽공원) 시위를 외면하고, 울공을 계속 찾는 장 대표를 “장외로 떠돈다”고 비웃으며 시대정신에 애써 눈 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중·동의 속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동훈 띄우고 장동혁 죽이기’다. 장 대표는 퇴진하고 한 의원이 복당해 대어 투쟁을 이끌라는 얘기다.

두 사람에 대한 논조가 사뭇 편파적인 것도 그래서다. 한 의원의 동정이나 발언은 되든 안 되든 매일같이 기사, 사설, 논평 등으로 크게 다루는 반면 장 대표한테는 부정적인 내용들만 쏟아낸다. 몇몇 앵커와 기자, 평론가는 한 의원 띄우기로 맹위를 떨치며 ‘한동훈 언론장학생’이란 비아냥까지 듣는 한심한 실정이다.

한 의원은 올 1월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으나 6·3 보궐선거에서 무소속(부산 북구갑) 당선으로 기사회생했다. 제명 사유는 ‘당계 게이트’. 국민의힘 대표 때인 2024년 본인의 모친, 아내, 딸, 장인 및 장모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와 친유계 중진들을 악질



무소속 한동훈 의원

적이고 저질스러운 표현과 욕설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을 1000여 건이나 당원 게시판에 올린 여론 조작 사건이다. 명색이 당대표가 가족들을 동원해 그런 짓을 하다 들통났으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그런데도 한 의원은 당선 이후 복

당의 문을 계속 두드린다. 명분은 ‘보수 재건’이다. 그러나 한 의원이 누군가? 우과의 궤멸, 나아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한 의원이다. 본인 입으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기 수사들”이라고 실토했다. 윤 정권의 법무장관이던 2023년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다. 정적들을 참혹하게 도륙한 조선 시대 사화(士禍)를 뺀친 문 정권의 적폐 수사 때 맹활약을 소환한 것이다. 문제는 그의 화양연화가 우과의 궤멸로 직결됐다는 점이다. 당시 우파 인사 수천 명이 수사받고 전직 대통령 2명과 대법원장을 포함해 200여 명이 구속됐다. 일찍이 이보다 더한 우파 궤멸은 없었다.

하지만 적폐 수사는 사화 못지않은 무리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실제 부패 행위 여부보다 정치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한 탓이 크다. 겹고 넘어질 게 안 나오자 ‘경제 공동체’란 요상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엮은 것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47개가 전부 무죄로 판결난 게 그런 사례들이다. 수사 도중 5명이나 자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이재용 삼성 그룹 회장을 두 차례나 투옥해 대만 TSMC에 반도체 패권을 빼앗기고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초일류 기업으로 솟구칠 기회를 놓치는 쓰라린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은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나라의 앞날을 가로막은 망국적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고도 ‘보수 재건’ 운운하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 여당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주대 없는 일부 중진이 가세한 이지메가 몹시 극성스러워 얼핏 보면 장 대표는 고립무원이다.

조·중·동에 따르면 그렇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한 의원 복당 반대파가 훨씬 많고,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복당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다”고 전했다. 적어도 당심은 장 대표 편이란 결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중·동이 엉터리 민심을 내세워 친한(親韓)-반장(反張) 논조를 고집하는 것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언론의 본령을 크게 일탈한 것이다. 상당수 국민이 부정 선거 의혹을 규탄하는데도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음모론으로 일축하고, 애국 시민들의 우국충정을 극우로 비하하는 편협한 시각으로 우과의 섭정 연하는 꼴불견도 추태다. ☞

## 제헌절 맞아 애국훈 승모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지난 7월17일 서울 용산 효창공원의 백범 김구 선생 경내에서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걷기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제78주년 제헌절로 18년 만에 국경일로 지정된 경사스러운 의미를 갖고 있다. 회원들은 경내에 모셔진 김구 선생 묘와 윤봉길·이봉창 의사의 묘,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가묘를 둘러보며 애국선열들의 숭고하고 거룩한 뜻을 기렸다.

삼복의 무더위 속에 회원 일부는 지팡이를 짚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다소 불편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신만큼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건

강하고 의연해 보였다.

참석 회우는 강두모, 김기원, 김홍운, 박교원, 안홍렬, 임상학, 유진수, 설임윤, 장 옥, 조명동, 조희곤, 최귀조, 최영배, 황우연 <글 조희곤, 사진 조명동>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왼쪽)이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야구부 ‘5·18발언’ 사과



화해와 용서로 매듭

# “정치프레임 씌워 여론 오도 안될말”

한 여름 무더위만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배재고 야구부 ‘혐오 표현’ 사태의 매듭이 사과와 화해로 풀렸다. 지난달 20일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배재고에 내린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1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이달 6일 개막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감경 이유로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을 들었다. 피해당사자인 광주제일고 측이 배재고를 용서하고 선처를 호소한 점도 고려했다. 학생선수들이 배움의 과정에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체육회는 밝혔다.

## 출전정지 1개월로 단축

배재고 야구부 선수단과 교직원, 학부모가 지난달 6일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두 학교 학생들은 면담을 마치고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정치권이 프레임을 씌워 갈등을 부풀린 사태를 화해와 용서로 풀었다.

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는 발언엔 학생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교육자의 품격이 담겼다. 홍경표 광주제일고 총동창회장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전했다.

광주제일고 교장과 총동창회, 야구단

## 권력 눈치보고 재빨리 중징계 찬반여론 팽팽...공정성 논란

감독은 고교 야구장이 단죄가 아닌 ‘교육의 장’이 되어 학생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등 관계기관에 배재고에 대한 선처를 공식 요구했다. 배재고 측은 광주제일고의 용서와 화해 기조에 힘입어 출전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를 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 일부 학생들이 상대팀인 광주제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고 구호를 외친 것이 파문을 일으킨 계기가 됐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하며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고 홍보한 사건과 맞물려 거센 비판에 직면했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사건발생 이틀 만인 지난 7월 1일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와 청룡기 몰수패란 중징계를 전광석화처럼 의결했다. 배재고가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할 틈도 없이 중징계 조치를 내린 배경엔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배재고측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 절차적 결함도 드러

났다.

스타벅스 사태는 대통령이 전면에서 나서면서 불을 지폈다. SNS를 통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현 이후 공권력을 남용한 불매운동이 펼쳐졌으니 권력의 눈치와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터.

## 권위주의 시절 연좌제 연상

징계수위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거셌다. 현장 조사에 따르면 부적절한 구호를 주도하거나 선창한 학생은 2명이었다. 야구부 전체에 일괄적으로 6개월 출전정지를 내린 것은 연대책임 성격이 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직접 가담하지 않은 고3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프로 진출 기회 박탈은 권위주의 시절 연좌제를 연상케 한다. 반면 고교 스포츠 현장에서 여과없이 분출된 반사회적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응원구호는 58.8%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6개월 출전정지 중징계는 “과도하다”, 48.8%, “더 강화돼야 한다”가 48.2%로 팽팽하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다.

## “응원 구호, 조롱·혐오 의도 없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들은 응원

구호가 혐오 표현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재고 학생 선수 36명의 경위서에 따르면, 학생 선수 대다수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등 발언이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단독보도(7월 9일 사회면)는 KBSA가 국민의 힘 박수민 의원실에 제출한 경위서를 입수해 쓴 기사다. ‘스타벅스 가야지’를 선창한 A군은 경위서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오직 팀 분위기만을 생각했고, 광주를 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없었다”고 적었다. ‘탱크데이’라고 외친 B군도 경위서에서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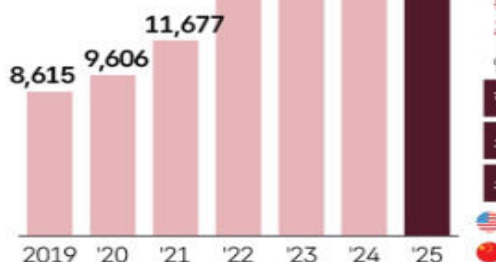
‘5·18’은 젊은 세대에겐 46년 전 교과서 속 역사다. ‘성역화’ 프레임을 씌우고 조롱과 혐오로 여론몰이를 한 건 정치권 등 어른들이다. 최민희 의원은 “5·18은 성역이다”라고 단정했고, 이개호 의원은 “배재고 야구팀은 해산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배재고 정문 앞에 화환을 보내 편 가르기 한 것도 어른스럽지 못한 비교육적 행태다. 차별과 혐오 사례 연구의 권위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경미한 놀림이나 조롱 정도라고 할지라도 인종·성별·종교·성적 지향이나 이번 처럼 어느 출신 지역 등이 언급되면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조했다. 혐오와 차별 표현은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오도해선 안 된다. ㉠

이규섭 (본회 회우·전 사무총장)

## 촉법소년 증가 추이 및 개요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10~13세) 사건  
경찰 검거 건수**  
소년부 송치 인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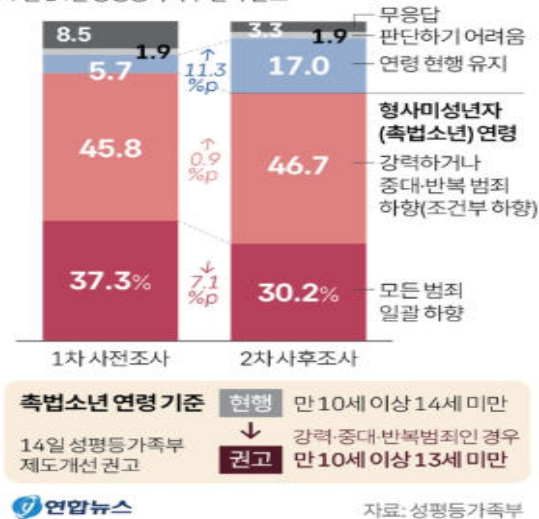
연말뉴스 자료: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공론화 결과, 7월 14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보호처분 연령 기준 14세→13세 하향 권고안 보고



##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

2026년 4월 속의토론회 전후 시민참여단 212명 조사,  
7월 14일 성평등가족부 결과 발표



# 촉법소년이 超法? NO, 교도소도 간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한 것은 작가 이문열이다. 날개로 나는 것들은 추진력을 잃으면 추락하게 마련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게 날로 흉포 잔혹해지는 이른바 촉법소년이란 미성년자 범죄다. 발생 빈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 추락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회 안전과 추락의 위험을 재촉하는 촉법소년범죄의 이율배반적 운명을 정부가 해결하려 나섰다. 그동안 촉법소년문제를 방관했다가, 소년보호 쪽으로 치우쳐 안전 비행에 경종이 울린 것이다. 그 누구든 추락의 빌미가 될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야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개인은 물론 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나는 감방에 안가” 큰 쇠리 치는 어린 범죄자는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강조한다. 누구건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사한 경우가 있을까. 촉법소년이라서 법 밖에 있다면 이 건 촉법이 아니고 초법(超法)소년이라 해야 옳겠다. 사춘기 또래의 어린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한다. 바로 촉법소년에서 초월(초법)소년으로 진화하기 때문이다. 범행후 경찰에 연행되면 “어차피 처벌도 안 받는데 해볼대로 해보라”며 오히려 조롱을 하고 덤벼든다. 영악한 데다가 악랄함마저 더해 담당관들을 당혹케 만든다. 그 잔혹성은 객관적 지표로 증명되고 있다.

2025년 지난 한해 동안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만1,095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에 비해 2.2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어떤가. 단순 절도뿐 아니라 폭력, 강간·추행 등의 강력 범죄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가 거의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봐야한다.

‘촉법’이 무엇인가. 일반인들은 그

## 범죄 흉포 폭증 만14세서 13세로 낮춰 강력·중대 팬 엄벌…전과자 양산 우려

말의 뜻도 잘 모른다. 촉법(觸法)의 ‘觸’은 접촉하다의 촉으로 서로 ‘맞닿는다’는 뜻이다. 촉법소년은 형사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일컫는 것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했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인식의 오류가 발생한다. 촉법소년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초법소년으로 바뀐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14세 미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촉법소년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이 조사만 받고 풀려나거나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큰 착오다. 촉법소년은 형사법에서 제외되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는다. 비록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교도소에도 가지 않더라도, 소년보호 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보호 재판은 촉법소년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에 따라 가사소년전문법관과 전문조사관이 있는 가정법원이 담당한다.

소년법 보호처분은 소년법상 1호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7월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터 10호까지 10가지로 구분되는데 호수가 높을수록 처분 수위가 강해진다. 1호 ~ 5호는 가정·사회 내 교정 조치, 6호 ~ 7호는 시설 위탁, 8호 ~ 10호는 소년원 송치다. 구체적으로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송치 등으로 나뉜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범죄소년이 대상이며, 수강

명령과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내려진다.

소년원은 신체 자유가 제한되지만, 형벌을 집행하는 교정시설인 교도소와는 달리 보호·교육시설이다. 전국에 10곳이 있는데 학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교육형, 제과·제빵·용접·전기 등을 교육받는 직업훈련형, 약물 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게 특화된 의료재활형으로 나뉜다.

흉포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소년범들이 감방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훈련원 알기를 기숙사 입소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탓도 있다. 안 그래도 정치권과 다수 언론, 분노한 시민단체들이 그간 줄곧 “시대가 달라진 만큼 형벌 연령 기준을 대폭 낮추고 사법적 책임을 강화해 강력한 법적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촉법소년으로 구분되는 청소년기는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환경적 자극에 쉽게 휩쓸리는 미완의 시기다. ‘14세’ ‘중2’라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사춘기의 중심이다. 요즘같이 조숙한 사춘기 소년들이어서 범죄는 한층 잔인한 쪽으로 치닫는다. 그렇기에 이들을 단죄하는 사법적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측면도 두드러지고 있다. 그 연장선이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이다. 만14세의 사춘기는 촉법에서 제외해 범행시 형사처벌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령을 기계적으로 낮추는 것만이 소년 범죄를 막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이다. 인권단체와 법조계 일부, 그리고 교육계 전문가들이 “형사처벌 연령 하향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도 간과해선 안된다. ‘전과자’ 낙인 효과로 이른 나이에 전과자가 되는 청소년들의 내일도 걱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주문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나서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이다. 현재 만 14세를 13세로 한 살 낮추고, 강력·중대 범죄는 감옥행으로 엄벌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성평등가족부는 연령 하향에만 그치지 않고 소년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 사회 복귀 지원 등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촉법이라 감방에 안간다”는 소리는 쏙 들어가게 생겼다.㉠



**최명우**

본회 편집위원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 휘청! 홈플러스 벼 꺾는 혁신에 회생 달렸다



전익식  
본회 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부국장

지난 7월13일 전국 67개 대형마트의 출입구를 닫아버린 홈플러스가 파산이라는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생명 연장의 밧줄을 붙잡았다. 7월 초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2주간의 유예기간에 2,000억 원의 긴급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하면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 파트너스는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 2,000억 원을 전액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병주 MBK 회장이 보증하면 1,000억 원의 추가자금만 지원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내 협상이 지연되는 등 회사 청산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회생법원이 제시한 유예기간 종료를 며칠 앞둔 7월 13일 홈플러스 본사는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영업을 중단한다며 전국 67개 매장에 ‘임시휴업’이란 팻말을 내걸었고, 노조는 청와대 앞 도로에 나가 “정부가 회생 대책을 세워달라.”는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15일 오전, 김 회장 개인과 MBK 법인이 공동보증을 약속하면 메리츠가 2,000억 원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이 협상안을 16일 열린 메리츠금융 3사의 이사회도 승인하면서 파산이라는 최악의 분위기가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매장 셧다운으로 직원 1만 2,000 명의 실직, 4,000 개가 넘는 납품업체와 협력업체, 임대 점포의 연쇄도산이라는 파국은 일단 피하게 됐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여론 악화와 국회 청문회 추진에 양측이 각각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지옥문 앞에서 간신히 발을 뺀 것에 불과하다. 2,000억 원은 고사 직전의 유통 거인에게 쏘아준 일

시적 ‘인공호흡기’일 뿐, 허약 체질을 건강체로 바꿔주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최종 만기인 9월 4일까지 연장된다. 홈플러스는 8월 초까지 수정 계획안을 확정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구해야 한다. 이런 절차 이행에 실패할 경우 다시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고 한다.

홈플러스는 일반 채권에 우선해 갚아야 하는 자금이 임직원 급여와 연체한 물품 대금, 세금 등 공익 채권을 포함하면 엄청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업을 정상화 되려면 텅텅 비어있는 매대를 채워야 하는데 대금을 받지

## 2,000억원 긴급 수혈 숨통...연쇄도산 일단 봉합 사모펀드 어수룩한 경영에 유통발전법 겹쳐 위기

못해 전전긍긍해온 업체들이 순순히 납품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MBK 파트너스는 자체 자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차입금을 통해 전국 140여 개의 매장을 거느린 홈플러스를 테스코로부터 인수했으나 엄청난 이자 지출이 발생하면서 초기부터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시종에는 이번의 파산 위기 사태를 가리켜 “이자 빚을 갚으려다 또 다른 이자 빚에 파묻혔다”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홈플러스 본사는 이번에 벼랑 끝에서 확보한 2,000억 원을 밀린 인건비나 임대료를 갚는 임시방편으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 고객을 다시 끌어들이고 매장 리뉴얼, 온라인 플랫폼과의 정교한 결합 등 개혁의 바퀴를 먼저 굴려야 한다. MBK 회장의 차입 보증은 생명 연장을 위한 유예기간의 비상금일 뿐이다.

현재의 대형 유통업은 단순히 물건을 떼어다 파는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구매자를 매장 안으로 유도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쿠팡과 마켓컬리 같은 새벽 배달형 이커머스의 끈질긴 공세를 막아낼



기업회생절차가 중단됨으로써 파산 가능성이 더 커진 홈플러스의 한 상가에 할인판매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제공>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명운이 서울회생법원에 맡겨지면서 ‘홈플러스와 근로자들을 살려달라’라는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고 국민과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하는 노조 역시 회생 의지의 주역 중 하나였다. 파산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재한 3자 회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채권단과의 협상을 유도해 낸 노조의 유연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영업을 재개된 이후에 과거와 같이 회사 운영체와 대립하는 구도로 회귀한다면 기사회생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이제 홈플러스 노조는 ‘권리를 지키는 투쟁’을 넘어 ‘회사를 살리는 협력’으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

곧장 망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어온 홈플러스가 다시 정상 영업을 재개한다면 단순히 한 대형마트의 생존을 넘어 위기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길만한 일이다. 사모펀드라는 금융 자본의 어수룩한 유통업 운영과 노조의 대립으로 공중분해 될 뻔한 수만 명의 고용자산을, 늦게나마 ‘대주주의 책임 보증’과 ‘노사의 적극적 협력’으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다시 문을 연

홈플러스가 이전과 닮은꼴이라면 떠나간 고객은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노사는 함께 “왜 홈플러스 매장에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회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운영 주체 MBK 파트너스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의 협상 지연에 촉각을 세웠던 정부와 국회 역시 파산을 전제로 한 대규모 실업대책 수립이라는 최악의 짐을 덜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은 현실과는 맞지 않아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방안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격주 휴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심야 영업 제한 규정을 만들어 손발을 묶은 것이 오히려 주변 상권까지 한산하게 만들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죽음의 문턱을 겨우 벗어난 홈플러스의 ‘안도의 기쁨’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동종 업체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그리고 온라인 판매업체와의 진짜 경쟁은 매장 조명이 켜지는 순간부터 치열하게 시작된다. 미래를 위해 대주주는 재기 자금을 마련했고, 노조원들은 크게 양보했으며, 법원은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유통시장의 냉혹한 평가다. 홈플러스 노사가 ‘지체된 혁신’의 고리를 끊고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안팎으로 증명해야만 극적인 회생 드라마는 완성되리라 본다. ☞

중앙그룹 총 차입부채 2,740,000,000,000원

# ‘월드컵 중계’ 대박 꿈꾸다 쪽박



이향숙  
본회 부회장  
수필가

범 삼성가의 계열인 중앙그룹 산하에서 잘 나가던 기업인 JTBC와 중앙일보가 갑자기 최종 부도 처리를 당했다는 소식이 7월 초 알려져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중앙일보는 일간신문 조선·동아와 함께 조·중·동 삼총사의 하나로 불리며 인기를 모았었다.

중앙그룹은 미디어, 문화, 영화 관련 기업이 구성원인 국내 유일의 문화콘텐츠 기업 집단이다. 부도 선언의 발단은 지난 6월12일이 만기였던 부채 206억원을 JTBC가 상환하지 못한 데서 시작됐다. 그러자 신용평가 기관이 중앙그룹 모든 기업의 신용 수준을 도미노식으로 급락시켰고 불안해진 채권사 한양증권은 중앙일보에 급히 채권 등 부채의 상환을 요구했다. 결국 중앙일보도 220억원을 부도냈다.

중앙일보는 1965년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창간됐다. 무난하게 발간되던 중에 2011년 JTBC를 개국하고 계열사 몇개를 더 창업해서 중앙일보는 삼성에서 독립하고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중앙그룹 주간사로 되었다. 중앙그룹 회장은 홍석현, 전 법무장관 홍진기의 아들이다.

JTBC는 중앙일보 계열의 평범한 종편 케이블 TV로만 알려졌었다. 그러다가 2013년 5월 MBC의 인기 앵커 손석희가 JTBC 보도담당 사장으로 영입되고, 2016년에 JTBC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특종 보도했다. 이 뉴스는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다.

그 보도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이 회장까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후에 가석방 됐다. 이 뉴스로 JTBC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됐다.

그러나 JTBC에 거부감을 느낀 시청자도 적지 않았다. JTBC가 증거로 삼은 최순실(후에 최서원으로 개명)의 태블릿 PC가 진짜 최순실 것인지 의심하는 뉴스도 있었다. 이렇게 JTBC에 대한 호 불호 속에 JTBC는 외관상



무리한 운영으로 몰락의 위기 속에 기사회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중앙일보와 JTBC.

## 독점료 1,900억원, 재판매 한곳 그쳐 부도에 결정타 광고 수주↓ 누적적자↑ 휘청...SOS요청에 삼성 거절

변창하는 듯했다. 그 와중에 두 매체는 광고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광고가 줄어든 이유는 복합적이다. 시대 변화 속에 종이신문의 인기가 떨어지고 뉴스를 신문보다 인터넷으로 접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국정농단 보도에 실망한 기업들의 광고도 줄었다. 불경기 탓에 업체들이 광고를 줄인 탓도 크다.

JTBC는 그룹에도 사업을 늘려나갔다. 드라마와 오락 프로를 늘리고 제작은 같은 그룹의 SLL사에 수주를 주었다. 연예프로가 많아질수록 제작비 지출이 늘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재벌집 외아들' 한 회 제작에 수억원이 들었다. 그러나 제작비 환수는 어려웠다. JTBC는 어음과 회사채 발행으로 적자를 메우기 시작했고, 같은 그룹의 메가박스(영화관) 체인이 적자 운영을 하자 지원도 해주었다. 이렇듯 JTBC의 방송광고 수주 침체와 누적 적자에 설상가상으로 최근 대형 스포츠 중계권료 부담이 결정적 아킬레스건이 되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7월에 열린 북중미월드컵 중계권을 독점으로 거금 약 1억2,500만 달러(한화 약1,893억~1,900억원)에 샀었는데 지상파 방송사에 재판매한 곳은 KBS 한 곳에 그쳤다. 그 엄청난 적자로 인

해 결국 국제축구연맹(FIFA)에 비용 일부를 지불하지 못했다.

월드컵 중계가 중단될까봐 축구팬들이 불안해 했지만 중계는 됐다. 이 중계료 실패가 부도의 결정타가 됐다. 적자 때문에 주식과 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버티었지만 만기가 돌아온 기존의 어음과 부채를 막지 못해 빚이 누적됐고 결국 파멸한 것이다.

문제는 두 주요 업체에서 끝나지 않는다. 메가박스 영화관 체인도 전국에 여러 곳 있는데 그간 지원해준 JTBC의 지원이 끊기게 되어 결국 부채 때문에 회생 청구가 불가피하다. 중앙그룹에서 25%의 지분을 가진 중앙홀딩스와 콘텐츠리중앙도 운영난으로 회생 조치가 시급하다. 영자신문 발행업체인 중앙홀딩스는 지난해 1,11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813억원)보다 3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말 중앙홀딩스 자본총계는 -140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사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홍석현 회장은 아직 삼성가의 실세인 친누나 홍라희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을 찾아가 급박한 시점이니 도와달라고 사정했으나 거절 당했다고한다. 이유

는 오래 전에 홍회장이 누나에게 300억원을 빌리고도 아직 갚지 않았다는 것.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연일 JTBC가 보도하는 와중에 홍관장 아들인 이재용 회장을 연루시켜 결국 감옥에 보낸데 대해 상처를 받은 서운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재용 회장 투옥 후 삼성그룹이 중앙일보와 JTBC에 광고를 전면 끊었다는 설도 있다.

지난 6월 부도 이후 중앙일보는 채권단에 경영권과 건물 매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갚아달라는 유예해달라는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다. 채권단은 7월 10일 회의에서 중앙일보의 요청에 4분의3 찬성으로 워크아웃을 승낙했다. 단, 유예 기간을 만 3개월로 한정했다. JTBC는 회생 신청 개시일을 8월말로 서울 회생법원이 정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중앙그룹 차입 부채는 총 2조7,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에 8,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나는 행은 약 3,070억원 규모의 여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큰 위험 요소를 가졌다고 한다.

현재 중앙일보와 사원이 540명인 JTBC는 정상 운영 중이다. JTBC는 연예프로 제작을 계속하고 있다. 출연료는 늦더라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도 정상적으로 발행하면서 자구책을 준비 중이다. ☐

# 2030 참정권 회복 ‘도화지 혁명’ 뜨겁다

##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 취재기

한여름 땀약별은 뜨겁고 외치는 목소리는 드높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는 딱 두 마디다. 아침·저녁, 낮과 밤, 주중·주말, 언제나 그 장소에 그 구호다. 40일을 훌쩍 넘겼다. 어떻게 온종일 같은 구호만 되낼 수 있을까? 지루하지도 않나? 목도 아플텐데..., 싶을 때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부른다. 어김없이 1절에서 4절까지다. 집회 현장이면 등장하는 그 흔해 빠진 스피커 하나 없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2026년 6월3일, 투표마감과 함께 개표를 위해 서울 송파구 관내 투표함이 모인 이곳, 올림픽공원(올공) SK 핸드볼 경기장의 모습이다. 필자는 이 집회가 시작된 첫 주말인 6월7일 이곳을 다녀온 이후 주로 주말을 이용해 여러차례 취재 겸 현장을 둘러보았다. 20,30 젊은 세대들이 ‘참정권 회복’을 주장하는 집회가 어떤 모습일까? 호기심이 치솟기도 했다. 평생을 언론에 몸담아 오면서 수 없이 많은 집회나 시위 현장을 취재해 왔지만 20,30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집회는 무척 생소하게 느껴졌다.

이 글에서 필자는 여·야나 진보·보수 등 이른바 진영의 주장이나 논리, 청소년층이나 중·장년, 노인층 등 세대 간 서로 다른 목소리는 배제하고, 50일 가까이 계속되는 현장의 모습이나 변화 등을 스케치 형식으로 생생하게 담아보려 한다.

올림픽공원 집회(이하 ‘올공집회’)는 주최 기구나 조직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헤드쿼터가 없는 자연발생적 집회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권을 빼앗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항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열 명이 스무 명이 되고, 백 명의 발걸음이 2백 명, 3백 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규모가 커졌다. 20, 30 젊은이들이 집회를 주도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이들 사이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SNS라는 통신 수단을 일상으로 하는 이들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인 어른들보다 발 빠르게 소통·규합하면서 개표장이었던 핸드볼경기장이 순식간에 ‘올공집회’의 진원지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 집회는 아직도 제대로 된 명칭조차 없다. 구태여 이름을 붙여 본다면 ‘올림픽공원 참정권 회복 청년운동’이나 ‘참정권 되찾기 올공 투쟁 집회’라고 부를 수 있겠다. 취재 도중 집회 참가자 숫자 등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볼 대상조차 찾기 어렵다. 어떤 집회나 시위현장을 가도 각종 전단지과 홍보물로 넘쳐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올공 집회장’에서는 단 한 장의 인쇄물도 받아본 적이 없다. 모든 소통과 의사 표시는 가로 35cm, 세로 25cm 정도의 조그마한 흰색 도화지에 손으로 쓰거나 그려서 이뤄진다. 그래서 ‘올공 집회’를 ‘도화지 혁명’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작은 탁자를 펼쳐 놓거나 맨바닥에 매트 깔고 앉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집회 참여자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손으로 쓰거나 그려준다. 태극기나 성조기 그림도, ‘부정선거...수개표’라는 구호도 모두 즉석 제작이다. 집회 참여자들이 손수 본인의 의견을 적은 수천, 수만 장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에 본인의 의견을 적은 수천, 수만 장의 도화지 전단이 핸드볼 경기장 3-5문 앞에 설치된 전시벽과 주변 광장 바닥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사진=심의표 편집위원>

의 도화지 전단이 핸드볼 경기장 3-5문 앞에 설치된 전시벽과 주변 광장 바닥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한 번이라도 현장을 둘러본 사람이라면 일각의 ‘음모론’ 따위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6월 초만 해도 올림픽 공원 현장에 제대로 준비된

을 잡고 따라나온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광장유치원과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외수업 교실도 성업 중이다. 의료지원, 머리 손질, 스마트폰 충전은 물론이고 모기향, 손 선풍기, 심지어는 스카치 테이프까지 제공된다.

이들의 ‘참정권 항쟁’을 지원하는 온정의 손길은 너무나 다양하고 풍성해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미국 교민들이 후원하고 있다는 5대의 디럭스 대형 버스(남성전용 2대, 여성전용 2대, 가족전용 1대)와 더위를 식히기 위한 냉방차가 불박이로 자리를 잡고 있고, 온갖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 트럭도 상시 대기 중이다. 컵라면은 기본이고 짜장면, 피자, 핫도그, 삶은감자, 생수, 과일 주스, 건강 음료, 냉·온 커피, 수박, 참외, 오이, 방울토마토, 바나나, 빵, 떡, 초코파이, 건빵, 건과류, 과자, 솜사탕 등등. 이밖에도 태극기 키홀더와 투

## 6월3일 이후 지속...부산 광주 등 동조 집회 확산

## 주최·조직없이 SNS로만 소통 자율적으로 운영

## 모든 의견표시는 도화지로...수만장 전시벽 장관

## 음료 의료 등 후원 쇄도...초·중 과외수업도 열려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SNS 소통망을 통한 젊은이들의 조직력과 순발력은 놀라운 것이었다.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물을 하나씩 갖추어 나가면서 지금껏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형태의 집회문화를 창출해가고 있었다.

집회장 입구 횡단보도 정리와 집회장 나들목 길의 보행안내는 자원봉사자들 몫이다. 경찰은 차도의 차량통제만 맡고 있다. 집회장 입구에 들어서면 얼음에 채운 생수, 소형 태극기와 성조기, 손으로 만든 도화지 전단, 각종 음료와 간단한 스낵 등을 나누어주는 배분대가 늘어서 있다.

메인게이트 격인 핸드볼경기장 1-3번 출입구를 중심으로 맨 앞쪽에는 커다란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젊은이들이 나란히 줄을 서서 깃발을 흔들며 집회를 선도한다. 이들을 마주보는 메인 집회장에선 참가자들이 소형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반복해 외친다. 이들 사이엔 아무런 규칙이 없는데도 임무교대(?)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크고 작은 연주팀들이 참가자들과 음악을 통해 호흡을 나누기도 한다. 비보이 공연 등 온갖 개인기를 뽐내는 길바닥 공연장도 마련돼 있다. 부모의 손

표 도장 모양의 기념 목걸이, 공정선거 그림을 프린트한 티셔츠 등도 나눠준다. ‘올공’ 집회장은 상상을 뛰어넘는 온갖 일들이 거짓말처럼 펼쳐지고 있다.

‘올공집회’는 날이 갈수록 찾아들기는커녕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전국 지방도시의 동조 움직임도 심상찮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부터 시작된 동조집회는 전국 중소 도시로 그 불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대학가와 수많은 시민단체의 지지 성명 발표와 움직임도 험사리 가라앉지 않을 기세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간신문과 방송, 이른바 레거시 언론매체들은 담합이라도 하듯 이를 외면하고 있다. 그 빈자리를 크고 작은 유튜브들이 메우고 있지만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공정하고 상식적인 언론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올공집회’는 어떻게 전개될까. 잣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선거제도를 바꾸는 거대한 쓰나미로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필자는 ‘수즉재주(水則載舟) 수역복주(水亦覆舟)’라는 공자가어(孔子家語)처럼 ‘여론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지 물처럼 무섭게 변할 수 있다’는 말을 곱씹어 볼 뿐이다.☞

심의표(본회 편집위원)

##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의 권익 훼손

# 오만은 몰락을 부른다



문관현  
본회 편집위원  
연합뉴스 부장

형사사법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억울한 피해자와 피의자를 만들지 않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기관 사이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다.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형사사법체계의 안전장치를 제거하여 국민의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첫째,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법률 적용과 사실관계에 미비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거나 핵심 참고인 조사가 누락되었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은 경찰 수사의 잘못을 시정하고 사건의 진실을 더욱 충실하게 규명하기 위한 절차이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정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경찰 역시 막강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체포, 구속, 디지털 포렌식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기관의 수사를 아무런 외부 통제없이 그대로 종결하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과 견제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를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이다.

셋째,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면 진실을 밝힐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반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충분한 무죄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송치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와 정점식 원내대표(세번째)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권리 보호위한 최소한 제도로 있어야 與지지층도 유지 의견 높아 재고해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씨가 14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러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피해자의 권리뿐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까지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

넷째, 보완수사권과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직접수사는 검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하는 권한이지만,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이미 수사한 사건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적 권한이다. 따라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 원칙을 강조하더라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최소한의 권한은 필요하다.

다섯째, 해외 주요 국가들도 다양한 형태의 보완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역시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일정한 검사의 통제와 보완 기능 자체는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제도이다. 이는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역시 국민 여론이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7월 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폐지 의견은 23%에 그쳤다. 특히 중도층에서도 유지 의견이 64%로 나타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로 유지 의견이 더 높

았다. 이는 국민 다수가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별개로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검찰 권한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과거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와 권한 집중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존재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 권한의 남용을 이유로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면 보완수사 요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횡수와 범위를 제한하며,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제도의 개선이지 제도의 폐지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형사사법체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를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은 폐지의 대상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유지해야 할 제도이며,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공정한 형사사법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이다. ☐

# “공부보다 인격”

이튼  
칼리지

# 영재들 참교육

특파원 수첩 런던 ①6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 특파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전 공주 영상 정보대학 교수  
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표 이사

톰 브라운은 시골 지주의 아들. 자유롭고 활기차며 운동을 좋아하는 소년이다. 그는 집 근처 작은 학교에 다니다가 마침 전염병(열성병)이 창궐, 학교가 문을 닫자 영국 중부 미들랜드지역의 명문 사립 럭비(Rugby)스쿨로 전학을 간다.

폭력적이고, 비겁하고 규칙을 잘 어기는 불량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이에 용감하게 저항하며 성장해 나가는 그는 새로 부임한 교장 토머스 아널드의 지도아래 병약하고 내성적인 후배 조지 아서를 돌보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톰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도덕적 책임감, 신앙, 우정, 갈등, 운동, 리더십을 배우며 성숙해진다. 이것은 교육에 관한 고전으로 평가받는 토머스 휴스의 1857년 자전적 소설, ‘톰 브라운의 학교생활(Tom Brown’s School Days)’ 이야기다.

이 소설은 전통적인 영국 사립학교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저자가 책에 나오는 바로 그 학교, 럭비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몸소 겪은 체험담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영국 사립학교 문화를 대중화하고 이상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도덕적 교육, 스포츠를 통한 인격 수양, 학생자치 등 아널드 교장이 추구하는 교육 개혁 정신은 전 세계 학교에 보급, 확산되었다.

런던에서 서쪽으로 40여Km, 유명한 영국 왕궁의 하나인 윈저 성(城)을 왼편으로 바라보면서 템스강을 끼고 5분쯤 숲길을 달리면 슬로우로(路) 양쪽에 고색창연한 석조건물이 눈앞에 펼쳐진다. 중세 튜더시대 고딕 양식의 석조 건물들. 고풍스럽고 웅장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입구가 따로 없이 무려 600여년을 비바람에 찌들고 이끼진 건물 사이로 펼쳐진 광활한 부지, 여기가 바로 세계의 영재를 배출하는 이튼 칼리지다.

수많은 건물 외에도 넓은 잔디밭, 운동장, 정원, 농장, 자연보호구역 등을 포함하여 무려 6.5km<sup>2</sup>. 서울 올림픽공원의 4.5배 넓이,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고 강 건너로는 윈저궁이 아름답다.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이랄까. 중세유럽의 대학도시를 연상시킨다. 칼리지라 하지만 대학이 아니라 13~18세 소년 1,300명을 선발, 교육시키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다.

캠퍼스를 오가는 학생들의 교복은 참으로 고전적이고 귀족적이다. 검은 연미복에 모닝코트, 검은 조끼, 검은 바탕에 하얀색 세로 줄 무늬 바지, 탈 부착식 스타치드 컬러. 흰 넥타이에 광나는 검은 구두.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스타일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학교 교복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사진 짬이다.

붉은 벽돌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채플(예배당)을 지나, 지금은 건물 보수공사 중이라 잠정 폐쇄되었지만, 학교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튼의 생활전 사회가 관광객의 인기를 끌었다. 영국 국왕 헨리6세가 지난 1,440년에 학



이튼 칼리지 전경, 규모는 서울 올림픽공원의 4.5배 넓이다.

## 1440년 개교...13세 입학 모두 1300명 교육 전원 기숙사 생활...총리 20명 배출 명문고교

교를 세운 이후 이튼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 놓은 전시장.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어느 학생의 침실을 그대로 재생해 놓은 곳. 막 럭비 경기를 끝내고 돌아온 5학년 상급생 하나가 신발과 유니폼을 그대로 입은 채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1학년 학생이 벽난로에서 토스트를 구워 식탁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그 옆에는 자작나무 회초리가 한 묶음 가지런히 놓여 있다. 지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스쿨의 전통으로 지켜져 왔던 상급생과 하급생의 주종관계, 특히 13세에 학교에 처음 들어간 신입생은 상급생 방의 불을 지피는 일부터 차를 끌고 세탁을 하는 등 몸종과도 같은 심부름을 하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고된 훈련을 쌓아왔음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그 회초리는 하우스 마스터라고 불리는 기숙사의 감독 선생님이 학생들을 단련시킬 때 쓰던 것이다.

패깅(Fagging)이라고 불리는 이 관습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나이 어린 학생이 상급생, 선배 학생에게 개인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제도. 상-하급생 간의 이러한 명령-복종관계는 그러나 1989년 아동법이 제정되고 현대적 가치(아동권리 향

상, 민주화, 평등, 학업성적)와 결합되어 순화, 지금은 모든 스쿨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영국에 사교육이 처음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스쿨을 특징짓는 커다란 두 가지 전통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하우스 시스템과 튜토리얼. 이튼은 연령을 혼합하여 학생 전원을 25개 기숙사에 10~60명씩 수용, 마치 작은 가족처럼 운영하며 하우스 마스터가 부모처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관리한다. 아울러 생활하면서 학업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 리더십을 기르고 감정 관리, 갈등 해결 등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튜토리얼은 교사 1명이 학생 하나를 1주일에 한 두 번씩 만나 연구할 자료를 주고 읽을 책을 추천하여 토론하고 평가하고 또 다음에 읽을 책을 추천하는 일을 반복하는 1대1의 개인 지도. 또 많은 독서가 필요한 에세이를 쓰게 하여 학생 자신의 창조적인 사고와 표현력을 향상시킨다.

개별적 지도를 통해 학생의 개성 있는 지성이 개발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제 관계가 단순히 지적인 관계에 그치지 않고 전인격적(全人格的) 관계로 발전됨은 물론이다. 단순히 학업 성적 위주의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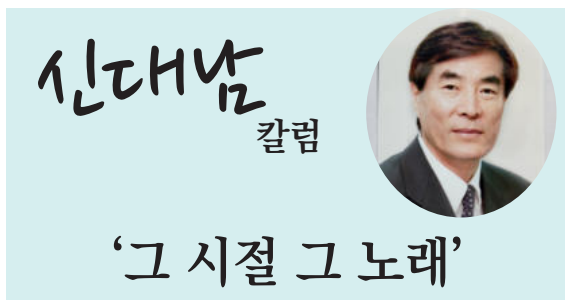
고 한 사람의 전체적인 성장을 목표로 잘 사는 인간(Well-being human)을 기르는 교육. ‘공부 잘 하는 아이’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며 타인과 조화롭게 사는 지혜를 기르는 전인적 교육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학생 자신의 책임아래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안내한 안토니 레이 교감의 말은 이 학교의 지도방침을 엿보게 한다. 교사 수는 약 155명, 대부분이 옥스브리지 출신이다. 교사 1인당 학생비율은 1대 8명, 대형 강의보다는 10~20명 정도의 소수 정예 교육이 가능하다. 상급학년으로 올라가면 5~10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 수업이 주를 이룬다.

스포츠를 통한 체력 향상과 협동심 배양에는 더욱 열성이다. 1주일에 사흘은 오후 내내 스포츠를 시키는데 그 종류가 축구, 럭비, 크리켓, 조정, 승마, 사냥, 스쿼시, 골프 등 거의 모든 종목. 또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분야도 각종 악기, 도예, 미술, 연극 등 갖가지이다.

초대 로버트 월폴을 비롯하여 역대 총리 55명중 3분의 1인 20명을 배출하고 왕실은 물론 각계 지도자에 이튼 출신이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폴레옹에게 굴욕적 패배를 안긴 웰링턴장군의 명언, ‘워털루전쟁의 승리는 이튼의 운동장에서 이루어졌노라’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

# 나애심 '세월이 가면' 필두 詩를 대중의 선율로



신대남

칼럼

‘그 시절 그 노래’

〈17〉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1950~60년대 서울의 명동은 예술인들이 모이는 낭만의 거리였다. 작가와 시인, 연극인과 영화인, 그리고 가수 등 예술인들이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인생을 얘기하고 문학을 얘기하고 주머니는 가벼워도 정이 있는 사람 냄새나는 동네였다. 세월이 가고 이제야, 관광객이 어깨를 부딪치고 변화한 상권의 거리로 변했지만, 그래도 ‘명동’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추억속에 정겨운 거리의 이름으로 남아있다.

의 어머니 이명숙여사가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남편의 영화사 이름을 따서 ‘은성’을 차렸다. 박인환은 유난히 대중가요와 연이 많았던 시인이다. ‘세월이 가면’이 나애심의 음반으로 나와 서정적인 노래로 유행하면서 현인, 현미, 조용필, 박인희, 이동원, 최백호, 임태경, 적우 등 후배 가수들이 자기 버전으로 불렀다.

박인희는 통기타 반주만으로 청아하고 담백하게 노래해 대학가와 7080세대들에게 낭만의 표상처럼 불리고 유행했다. 대부분의 팬들이 ‘세월이 가면’을 박인희가 처음에 부른 원곡의 가수로 알 정도였다. 박인희는 또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를 잔잔한 음악을 깔고 낭송한 시음반을 발표했다. ‘목마와 숙녀’는 전국의 다방가에서 분위기 음악으로 하루종일 틀을 만큼 인기였고, 1970년대를 대표하는 유행가처럼 대중이 애송하는 낭만의 시가 됐다.

“한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나는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나애심

영옥(소프라노) 마마무의 솔라 등이 리메이크하고 김민기도 불렀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다가올 가을에 들을 만한 노래다.

가수 송창식은 서정주의 시 ‘선운사’와 ‘푸르른 날’을 자작곡으로 절창했다. 선운사는 동백꽃과 풍천장어로 유명한 서정주 시인의 고향 전북 고창의 유서 깊은 고찰이다. 동백꽃이 피고 지는 풍경이 인생을 느끼게 하는 사찰이다. “선운사에 가신 적이

박인희 송창식 이동원 등 열창  
김소월 정지용 서정주 名詩들  
메마른 삶에 촉촉한 활력소로



송창식



이동원



박인희

1956년의 어느날 밤이었다. 시인 박인환과 조병화, 극작가 이진섭, 그리고 미모의 여배우 겸 가수 나애심이 명동의 골목길 ‘은성’이라는 대포집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거나해진 조병화가 나애심에게 노래 한 곡을 청했다. 나애심은 “대포집 분위기에 맞는 마땅한 노래가 없다”고 했다. 박인환이 말없이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이진섭이 그 자리에서 곡을 붙이고 나애심이 노래했다. 한국의 명시 ‘세월이 가면’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박인환은 1주일 뒤 1956년 3월 20일 서른살의 나이에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그 2개월 뒤, 1956년 5월 신신 레코드사에서 나애심의 ‘세월이 가면’ 음반이 나왔다.

‘세월이 가면’이 태어난 대포집 이름 ‘은성’은 영화 제작자였던 텔런트 최불암의 아버지 최철씨가 운영하던 영화사의 이름이다. 남편이 ‘내일 없는 그 날’이란 영화를 제작중 과로로 세상을 뜨자 최불암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거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라고 했다. 그 박인환이 무슨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서둘러 떠났는지.

‘세월이 가면’의 영향으로 1970~80년대 한국 가요계는 시의 언어를 대중의 선율로 옮기는 낭만의 시대를 열었다. 1972년 정미조가 이희목 작곡의 김소월 시 ‘개여울’로 데뷔에 성공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 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이별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위한 김소월의 서정이 가슴아픈 시다. 심수봉 적우 김혜수 아이유 등의 가수가 자기 버전으로 불렀다.

또 가을이면 방송가의 지정곡으로 흐르는 최양숙의 ‘가을 편지’가 있다. 시인 고은이 상송 가수 최양숙의 노래를 위해 쓴 시로 김민기가 작곡해 1971년에 발표했다. 누구라도 그대라고 부르고 싶은 가을의 정서를 편지로 함축한 노래다. 박효신 이동원 신

있나요 바람 불어 설운 날에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송창식의 가락진 창법이 시의 리듬을 잘 탄 노래다. ‘푸르른 날’은,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는 다른 말이 더 필요 없는 시다.

이동원은 테너 박인수와 김희갑이 작곡한 정지용의 ‘향수’를 유니송으로 노래했다. 그리고 1984년 정호승 시인의 ‘떠나는 그대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대를 사랑하기 아직 늦지 않으려...’의 ‘이별 노래’와 ‘봄길’ ‘부치지 않은 편지’, 그리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노래했다. 안치환도 정호승 시인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를 노래하고 ‘향수’를 리메이크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원화 기준 2,000원)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으나 2025년 한국의 1인당 GNI는 36,936달러(원화 기준 5,257만원)로 경제 규모 세계 15위의 나라가 됐다. 하지만 아직도 매일 삭막한 뉴스를 보고 정치도, 사회도 갈등으로 얼룩지고 정도, 낭만도 메마른 풍경이다. 추억의 명동이 그리운 시대다. [본문]

신대남(본회이사·전 한국일보사 일간스포츠편집국장·상무이사)

# 축구協 위기... '회장선거 개혁'이 열쇠

## 현행 제도론 '그나물에 그밥' 중론...직선제등 대책 시급

한국 축구의 앞날이 어둡다. 수년 전부터 잇달아 불거진 파문으로, 내환의 화농(化膿)에 시달려 온 KFA(대한축구협회)가 심연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26 북중미 FIFA(국제축구연맹) 월드컵 참패와 32강 진출 좌절로 말미암은 국민적 분노는 어쩌면 예정됐던 결말일지 모르겠다. 이제 시선은 그 환부를 잘 도려내 거둬낼 수 있을지에 쏠린다.

오늘날, 한국 축구가 처한 위기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유소년 육성, 지도자 양성, K리그 경쟁력 등 한 나라 축구의 기반을 이루는 시스템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도 한국 축구를 이끄는 KFA 거버넌스 부재와 인맥 카르텔은 구조적 위기를 부른 화근으로 거론됐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비난 받은 A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해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은 행정과 현장의 괴리를 초래하며 행정 난맥을 빚은 근인이었다.

이런 난맥상의 밑바닥엔, 정몽규 전 KFA 회장의 아집과 독단이 자리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정 회장은



7월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국민과 축구팬의 공분과 비난에 부딪혀 사퇴했다. 2013년 KFA수장에 오른 뒤 지난해 4연임을 이뤘지만 거기까지였다.

따라서 회생의 실마리도 취약한 KFA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은 없다. 축구인들은 회장부터 최적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러기에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현행 회장 선거 제도상, 정몽규 체제하 인사가 후임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축구계 안팎에선 벌써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축구인들은 "현 KFA는 그

뿌리부터 뽑아내고 새로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말한다.

'개혁론'자들은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현행 제도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로 회장을 뽑는다. 시·도협회·K리그·지도자·선수·심판 등으로 나뉘어 여러 범주의 집단에서 선거인단을 뽑은 뒤 이들이 회장을 선출한다. 당연히, 직전 회장 또는 그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선출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직접 선거다. 축구행정가를 비롯해 지도자·선수·심판 등 모든 축구인을 망라한 직선

제로 참신한 인물을 뽑자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축구가 처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키 위해 K-축구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유승민·박지성)를 출범시킨 배경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경우 선거인단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이다. 10만 명을 훌쩍 넘겨 20만 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KFA가 이를 구현할 방도는 없다. 인력도 재정도 이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인단 규모 확대도 거론된다. 혁신위 공동위원장인 유승민 대한체육회(KSOC) 회장이 그 주장의 근거를 제공했다. KSOC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인단 규모를 수만 명까지 확대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했다. 회원 종목 단체인 KFA도 이에 따라 선거인단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이런 규모의 선거인단 투표를 하루 내에 치르기엔, 일개 스포츠 단체인 KFA로선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회장 사퇴 후 60일 내(9월 4일)에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현행 선거 규정에 따른 시간 제약도 걸림돌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한국축구다.☞

최규섭 (사)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스포츠 저널 코리아』 편집인 & 편집위원장

## 스페인, 16년 만에 월드컵 품안에

### 아르헨 1-0 제압...8경기 1실점 철벽수비 뽐내

신이 택한 최종 승자는 스페인이었다. 16년 만에 완벽하게 이뤄진 '무적함대'의 귀환이다. 96년의 연륜을 쌓은 FIFA(국제축구연맹) 월드컵 역사에서, 통산 세 번째 2연패를 노리던 아르헨티나의 야망은 마지막 순간에 물거품처럼 스러졌다.

지난 7월 19일 오후 3시(한국시각 20일 오전 4시) 미국 뉴저지주 이스터러퍼드에 자리한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킥오프된 2026 북중미(미국·캐나다·멕시코) FIFA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은 아르헨티나를 1-0으로 물리치고 포효했다. 연장 후반 1분, 페란 토레스가 챔피언골을 뽑아내며 단숨에 대서사극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16년 전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 '티키타카(Tiqui-Taca) 축구'를 선보이며 첫 정상에 올랐던 스페

인은 완벽한 공수 균형을 바탕으로 두 번째 월드컵을 품에 안는 영광을 누렸다. 8경기를 치르며 14득점 1실점의 빼어난 균형미를 뽐냈다.

이로써 스페인은 우루과이·프랑스와 더불어 통산 우승 순위 5위(2회)로 뛰어올랐다. 브라질(5회)→ 이탈리아·독일(이상 4회)→ 아르헨티나(3회)의 뒤를 이었다.

아울러, 스페인은 세계 축구사에 대기록을 작성하는 금자탑도 쌓았다. A매치 38경기 연속 무패(28승 10무) 가도를 내달리며 이 부문 최다 기록을 세웠다. 2024년 3월 26일 브라질과 치른 친선 경기(3-3 무승부)부터 2년 4개월 동안 전패를 몰랐다. 이 기간에, 독일에서 열린 UEFA(유럽축구연맹) 유로 2024도 휩쓴 바 있다. 그야말로 무적함대다운 순항이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스페인 중원



16년 만에 두 번째 희망봉에 닿은 '무적함대' 스페인이 FIFA 월드컵을 높이 치켜든 루이스 데 라 푸엔테 감독(가운데)과 함께 우승의 환호성을 터뜨리고 있다.

의 버팀목인 로드리는 골든볼을 수상하며 더욱 진한 감격을 누렸다. 스페인은 GK 우나이 시몬이 골든 글러브를, 센터백 파우 쿠바르시가 FIFA 영플레이어상을 각각 수상하며 개인상도 휩쓸다시피 했다. 여러모로 더욱 빛난 우승이었다.

2022 카타르 대회에서, 월드컵에 맺힌 한을 비로소 풀며 골든볼까지 품었던 아르헨티나의 핵 리오넬 메시는 실버볼을 수상했다.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는 골든부트(10골 4어시스트)를 받으며 두 대회 연속 득점왕에 올랐다. 또한 음바페는 메시(21골)를 제치고 통산 최다 득점(22골)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하루 앞서 열린 3-4위전에선, 잉글랜드가 프랑스를 6-4로 꺾고 다소나마 아쉬움을 달랬다. 60년 전 안방에서 열린 1966 대회 우승 이후 최고 성적이다. 양팀 합계 10득점은 역대 3-4위전 최다골 기록이었다.☞

# 시장·기업·정부 ‘3위1체’로 국가 발전

## 대한언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⑬



좌승희 박사

아주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전회에서 박정희의 경제 발전사상이 자유시장경제의 틀 위에 서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차회의 주제로 돌리고 이번 회에서는 이승만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어떻게 박정희의 경제 발전사상과 만나 대한민국의 건국사상(이런 개념이 가능할 수 있다고 동의한다면)이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회에서 짧게 언급한대로(전회 그림 참조) 박정희는 이승만의 자유민주, 시장경제 사상을 이어받고 여기에 자본주의의 핵심인 기업경제 사상과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부(혹자는 이를 비민주적이라 하지만 최근의 노벨상 수상자들도 이런 정부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증언한다)를 합친 새로운 국가 발전사상인 시장, 기업, 정부의 삼위일체 국가 운영체제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경제변영의 전제인 박정희의 경제적 차별화 경제질서는 바로 반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박정희와 이승만은 또한 반공사상을 공유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승만과 박정희는 국가변영을 위한 건국사상 체계를 함께 새로이 제시한 셈이다.

이승만의 자유주의 사상은 아주 뿌리가 깊어 보인다. 그가 도미 유학 전 투옥상태에서 집필한 ‘독립 정신’은 서양의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 뒤지지 않는 시장경제 사상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승만이 1910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찍부터 당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풍미하던 공산주의 사상의 문제점을 통찰하였다는 점이다.

러시아가 1917년 볼셰비키혁명으로 모든 인간에 경제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기치 아래 소련 공산제국을 건설한 후 카를 마르크스의 경제 평등주의 사상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던 때였다.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하와이에 체재하며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 1913년 9월 20일에 ‘태평양 잡지’(The Korean Pacific Magazine)를 창간했다. (후에 ‘태평양 주보’로 제호 변경) 그는 1923년 3월에 이 잡지에 팔막하지만, 당시로서는 너무나 통찰력 있는 ‘공산당의 당부당(當不當)’이라는 논고를 출간하였다. 이는 소련 출범 겨우 6년 후에 쓴 것으로, 당시 잘 나가는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통찰하였는데, 오늘날 공산주의 비판의 교과서가 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의 1948년 ‘노예에의 길 (The Road to Serfdom·1944.3, Routledge, England)’이 출간되기 25년이나 앞서 이미 공산주의의 문제점과 향후 민주정치가 안게 될 문제점을 너무나 정확히 지적하였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산당이 <적당>한 점으로서, 민주주의가 반상의 차별을 없애 정치적 평등은 실현하였으나 빈부의 차별은 여전히, 공산당의 평등주의가 이것을 없이하여 다 균평하게 하자 함이니, 어찌하여 이것을 균평히 만들 것

## 민간 해체·청산하는 공산주의 방식 배척 기업 육성 되레 집중 동반성장 실현 박차

은 탄 문제이거나, 평등을 만들자는 주의는 대저 옳으니 이는 적당한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이 <부당>한 점은 (1)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2) 자본가를 없이 하자 (3)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4)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5)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국가사상도 없이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이승만 박사가 실천적 자유주의 사상가로서 당대의 세계 최고의 지성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 국민도 이점을 알고 널리 알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박사가 정치학자로서 단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전 세



당대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의 경제단체 건물들.  
(연합뉴스 제공)

의 해체·청산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기업육성이 바로 동반성장 실현의 열쇠였음을 증명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이승만과 박정희가 함께 실현한(전회에서 제시한)삼위일체 경제발전사상이 바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한국의 건국사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전회(2회)에서 살펴본대로 2차대전 이후 공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싸움에서 그들의 평등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를 평등하게 만든다고 재분배 복지국가를 지향해온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오늘날 뜻밖에 저성장·양극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아직도 “어떻게 경제를 균평하게 만들 것인지”하는 이승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있었던 셈인데, 그 답이 바로 당대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했던 한국의 건국사상에 있음을 이제 깨닫고 배워야 할 일이다. ㉠

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과제를 던진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제는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미완의 과제로 남았었고 운명적으로 그 뒤를 이은 박정희의 제일의 해결과제가 된 셈이다.

이승만의 건국이념 위에 선 박정희 시대는 자본주의 경제 운영의 새로운 사상을 창안하여 당대 최고의 동반성장 경제의 기적을 실현함으로써 세계에 어떻게 공산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의 교훈을 제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박정희 성공의 핵심은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기업

# 아프리카! ‘인류의 고향’을 가다

## ‘에어워커’의 세계 여행 ⑦

아프리카와 남미는 좀처럼 가보기 힘든 지역이다.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97박98일간의 세계일주 크루즈 여행을 통해 두 지역을 다녀 올 수 있었다. 크루즈 여행도중 아프리카 근해를 지날 때 오버랜드 투어로 빅토리아 폭포와 나미비아 사막을 다녀온 이야기를 편지 형태로 소개한다.

현지 가이드가 우리 부부만을 안내하는 럭셔리한 스케줄로 평생 기억에 남을만한 여정이었다.

1월 7일

여기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한인 민박집입니다. 어제 포트 엘리자베스항에서 저가항공으로 1시간 30분 날아왔습니다. 한국인 가이드를 만나 테이블 마운틴(해발 1,087m)에 올랐습니다.

승용차로 중간까지 올라가 360도 회전 케이블카를 탔지요. 바다와 케이프타운 전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더군요. 정상의 날씨는 그야말로 변화무쌍. 바람이 엄청센 데다 금세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한두방울 내리는가 싶더니 해가 맑게 고개를 내밀고. 순전히 돌로만 되어있는 평평한 정상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최남서단에 있는 150년 역사의 등대와 희망봉을 둘러 보았지요. 널따란 초원이 황무지(?)로 남아 있는 게 안타깝더군요. 펭귄비치에 들러 아프리카 펭귄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생김새를 살펴 보았습니다.

〈채프만스 픽〉이라 불리는 해안 절벽길을 30여분 달리며 아찔한 스릴을 느껴 보기도 했지요. 2022년 도로 개설 100년이라는 표지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항구에 조성된 〈워터프런트〉. 대형 쇼핑몰과 카페, 음식점등 유흥시설이 밀집된 여행객들의 천국이더군요.

움직이는 다리, 시계탑건물,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동상등도 보았지요.

이 나라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4명이나 배출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1월 8일

드디어 빅토리아 폭포에 왔습니다. 짐바브웨쪽에서 1,200m 길이에 100m가 넘는 높이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한쪽에선 폭우처럼, 다른



경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내려다본 빅토리아 폭포 전경.

## 빅토리아 폭포 ‘비류직하 100m’ 헬기 타고 한눈에

쪽에선 가느다란 실비처럼, 또 다른 쪽은 바짝 말라있는 모습입니다. 16곳의 뷰포인트를 모두 돌아보느라 다리가 조금 아프네요. 헬기타고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았지요.

잠비지강에서 배를 타고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우아하게 저녁 만찬을 즐겼습니다. 와인에 칵테일 한잔. 강변에서 잠자는 크로커다일과 물속에서 유영을 즐기는 하마떼를 본 건 덤이었지요. 날씨는 생각보다 덥지않아 견딜만 합니다. 숙소는 엘리펀트 리조트라는 곳인데 규모는 크고 화려한데 조금 낡은듯 합니다.

호텔 포터가 벌레 특히 모기가 있다며 스프레이를 뿌려주세요.

1월9일

하루종일 보츠와나 초베 국립공원 사파리 투어를 했습니다.

한시간여 달려 간단한 출입국 수속을 하고 보츠와나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차량도 12인승 지프로 바뀌고 승객도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이드도 바뀌었지요. 먼저 보트를 탔습니다. 초베강을 일주하며 악어, 하마를 2~3m 앞까지 다가가 관찰했습

니다.

신기한건 마치 조각품을 가져다 놓은듯 꼼짝도 안하다가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멀찌감치 물에서 움직이는 동물들도 볼수 있었지요.

물새 종류도 여럿 보았지만 이름은 모르겠네요. 가이드가 영어로 설명하긴 했지만 금방 잊혀져서요. 형형색색의 빛깔을 띤 자그마한 새가 수천마는 될법한 하마 주위에서 함께 노니는게 신기합니다. 오후엔 다시 육지로 옮겨 오전에 본 초베강 주변 초원(?)을 원 없이 훑었습니다.

코끼리, 코뿔소, 기린, 원숭이, 버팔로, 사슴 등이 집단으로 떼지어 다니는 풍경을 수도없이 목격했지요.

저녁엔 100년의 역사를 지닌 빅토리아 호텔의 식당 〈정글 정션〉에서 민속공연을 감상하며 우아하게 저녁만찬을 즐겼습니다.

1월 10일

이곳은 나미비아 빈트후크에 있는 힐튼호텔입니다. 특급호텔인데도 와이파이가 터지지않아 문의해보니 유료라고 하네요. 하루 3만2천원. 너무 비싸지요. 이곳은 통신사정이 열악해

서 데이터 로밍도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만 가능하다고. 아직 한국대사관도 없고 교민은 모두 33명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어제는 잠비아로 건너가 그쪽의 빅토리아 폭포를 한시간 남짓 돌아 보았지요. 역시 물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아 세계 3대폭포라고 하기가 조금 무색합니다. 빅토리아폴에서 케이프타운을 거쳐 빈트후크에 비행기를 갈아타고 왔습니다. 많이 피곤하지만 내일은 8시간 가까이 사막을 달린다고 하니 바짝 긴장이 됩니다.

1월 11일

나미브 사막을 본격적으로 관광하는 일정입니다. 대통령관저를 한바퀴 면발치서 훑어보고 깨끗하게 포장된 길을 싱싱 달립니다. 1시간 만에 비포장도로에 도달합니다. 몽골에 비하면 비단길입니다. 2시간쯤 더 달리니 본격적인 사막이 나타납니다. 개천은 완전히 말라있으나 물이 흐른 흔적만 남아 있네요. 20여분 더 달려가니 Dead-Valley 뚝지 간판이 보입니다.

첫눈에 무척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부킹닷컴에 조회해보니 1박에 8,200NAD(약 62만원)하는 초특급 호텔이네요. 낮 12시 30분.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은 후 방에서 3시간 가량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5시. 계곡 탐방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모래밭 한 가운데 비포장길이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20여분 만에 세스림 협곡에 도착했습니다.

협곡을 내려가니 물줄기가 보입니다. 시냇물 정도. 이번엔 모래언덕에 올라 보았지요. 미카엘 가이드가 몹시 덩다며 자기는 차에 있을테니 20분동안 다녀 오랍니다. 고운 잔모래속에 폭폭 빠지며 300m쯤 걸었을까요? 엄청덥고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18분만에 하산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잠시 쉬후 저녁을 먹으러 나섰지요. 야외 수영장옆에 식탁을 마련하고 자리에 앉으니 현지인 둘이서 북처럼 생긴 악기를 두드리며 우리 부부만을 위한 환영노래를 불러줍니다. 태양이 사막지평선너머로 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1월 12일

월비스베이로 넘어와 다시 크루즈선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 남미 브라질을 향해 기나긴 항해에 접어들습니다. 벌써부터 파도가 거세짐을 느낄수 있습니다.☞

박진환 (J & J 미디어 대표·본회 회우)

## 나미브사막, 바람이 빚는 ‘모래 파노라마’ 탄생 절로



뛰어난 자연미를 지닌 나미비아의 나미브 사막.

# 헌강왕 후궁이 처용의 바람난 아내?

## 황원갑의 史談史話



황원갑

본회 회우  
소설가·역사연구가

신라 제49대 임금 헌강왕(憲康王) 시대는 비교적 정치가 안정되고 천재 지변도 없는 태평성대여서 도읍인 서라벌에는 집과 담이 줄줄이 이어졌는데 초가는 하나도 없었다. 가뭄도 없었고, 홍수도 없었고, 태풍도 오지 않았다. 다들 먹고 살만하니까 가무음곡이 거리마다 울려 퍼졌다.

어느 날 왕이 개운포(蔚山)에 나가 놀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에서 쉬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왕이 어찌된 영문이냐고 묻자 일관(日官), 즉 왕실의 점쟁이가 아뢰기를 “이는 동해용의 장난이니 좋은 일로 풀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용을 위해 근처에 절을 세우라고 했더니 그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흩어졌다.

이 때문에 그곳 지명이 ‘구름이 걷힌 개어귀’란 뜻의 개운포(開雲浦)가 되었다. 동해 용이 기뻐하여 아들 일곱을 데리고 왕의 수레 앞에 나타나 감사의 표시로 노래하며 춤추었다. 그

리고 잤다.

그렇게 불륜에 재미를 들인 두 남녀는 처용이 없을 때마다 곧잘 정을 통했다. 하루는 처용이 외출했다가 그 날따라 좀 일찍 들어와서 아내가 다른 사내와 함께 뒹구는 꼴을 보고 말았다. 그때 처용이 부른 노래가 바로 다음과 같은 향가 ‘처용가(處容歌)’이다.

- 동경 밝은 달에

밤 이슬히 놓고 다니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둘은 내 해인데  
둘은 뉘 해이고.  
본디 내 해다만  
빼앗는 걸 어찌리. -

그러자 귀신이 처용에게 정체를 드러내고 꿇어앉아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의 아내를 탐내어 그대와 상관했소이다. 그럼에도 당신이 노하지 않으니 참으로 놀랍고도 장하구려! 내 맹세코 앞으로는 대문에 당신의 얼굴을 그려붙인 것만 봐도 그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소이다!”

## 왕비 질투 심해 처용과 짝지워주고 위기 모면 통정 현장 발각...왕 밝힐 수 없어 노래로 위안



제49회 처용문화제에서 헌강왕이 처용을 만나는 설화를 반영해 울산 도심에서 펼쳐진 ‘처용 퍼레이드’. <연합뉴스 제공>



국가유산청이 2024년 8월 7일 조선 전기 수군(水軍) 기지로서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의 배후지로 쓰이기도 한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을 사적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 남쪽 성벽. <연합뉴스 제공>

의 아들 하나가 임금을 따라 서라벌로 들어왔는데 이름을 처용(處容)이라 하였다. 왕이 그를 미인에게 장가 보내고 급찬 벼슬까지 내렸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처용 아내의 빼어난 미모가 화근이었다. 처용 아내에게 눈독을 들인 역신(疫神)이 사람으로 둔갑하여 처용 아내에게 끈질긴 ‘작업’을 건 끝에 마침내 성공하여 데

그 뒤로 사람들은 처용의 얼굴을 그려 대문에 붙여놓고 역신을 쫓게 되었다. 그런데, 처용의 정체는 ‘삼국유사’의 이 설화와 같이 정말로 동해 용왕의 아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임금을 따라 서울로 가서 미인에게 장가도 들고 벼슬살이도 했다가 분명히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찌면 울산 지역의 호족인지도 모른다. 처용이 정말로 용

왕의 아들이라면 아무리 상대가 역신이라도 그리 쉽사리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혹시 처용의 아내도 바람기가 많은 여자가 아니었을까. 상대방이 역신이라도 정조관념이 굳세었다면 웬만한 ‘작업’ 정도는 능히 뿌리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역신의 정체는 어찌면 헌강왕이었는지도 모른다. 처용에게 짝지워준 미인이 원래는 헌강왕의 총애하던 후궁이었는데 왕비의 질투가 심해서 처용에게 내려주었고, 그래도 잊지 못해 몰래 찾아가 통정을 하다가 처용에게 들킨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처용이 차마 임금에게 따지고 덤벼들 수는 없고, 그 정체를 밝힐 수도 없기에 홀로 춤추고 노래하며 물러났는지도 모른다.

헌강왕과 용, 또는 신들과 얽힌 이야기는 더 나온다. 개운포에서 서라벌로 돌아온 왕은 영취산 동쪽 기슭의 경치 좋은 곳을 가려서 절을 세우고

이름을 망해사(望海寺)라 했다. 또는 이 절을 신방사(新房寺)라고도 했는데, 용을 위해서 세운 절이라고 했다.

또 한 번은 포석정(鮑石亭)에 갔을 때 남산의 산신이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주변의 신하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왕의 눈에만 보였다. 그 신의 이름은 상심(詳審)이라고 했으므로 지금까지 나라 사람들은 이 춤을 전해서 어무상심(御舞詳審), 또는 어무산신(御舞山神)이라고 한다. 일연선사(一然禪師)는 <삼국유사>에서 이렇게 계속했다.

‘어법집(語法集)’에서 이르기를, “그때 산신이 임금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기를, ‘지리다도파(智理多都波)’라 했는데 여기서 도파란 것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미리 사태를 알고 많이 도망하여 도읍이 장차 파괴된다는 뜻”이라 했다. 즉 지신과 산신은 나라가 장차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춤을 추어 이를 경고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되레 상서(祥瑞)가 나타났다고 하여 향락에 빠져 흥청댈기에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일연선사의 교훈이라 하겠다.☞

# 동아일보, 일제강점기 ‘충무공 현양’ 앞장

교과서에 안 나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秘史 ⑤



김동철

본회 이사  
이순신인성리더십포럼 대표

1592년과 1597년에 발발한 임진-정유 7년 전쟁은 단군 이래 최대 국난 상황을 초래했다. 조선, 명나라, 일본이 참여한 16세기 동북아 최대의 국제전이었다.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이순신 장군의 위기관리 리더십은 300여 년이 지난 일제강점기에 다시 현양되었다. “모든 시대에는 신(神)이 있다”는 독일의 실증 사학자 레오폴트 폰 랑케의 말대로 이순신 장군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 매체에 의해 ‘군신’으로 재조명되었다.

편집국장 춘원 이광수 총 178회 연재

일제강점기인 1931년 5월 13일자 동아일보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종손의 부채 때문에 위토(位土·묘소 관리비 조달을 위한 토지)가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며 묘소와 사당, 종가가 모두 퇴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거국적으로 애국혼을 촉발시켰다. 당시 논설위원이던 위당 정인보는 사설에서 “(이는) 민족적 수치에 그치지 않는 민족적 범죄”라며 “충무공의 묘소와 위토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책임”이라고 호소했다. 각지에서 편지와 성금이 동아일보로 답지하기 시작했다.

충무공 유적 보존이 대중운동으로 확대된 배경엔 국난 극복의 상징인 충무공을 숭상하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었다. 당시 언론은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계몽운동 차원에서 영웅들의 업적을 재조명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충무공이었다.

동아일보는 1921년 4회 분량의 ‘이조인물약전 리순신’을, 이어 1930년엔 사학자인 환산 이윤재의 ‘성웅 이순신’을 소개했다. 1932년에는 당시 편집국장이던 춘원 이광수의 장편소설 ‘이순신’을 연재했다. ‘이순신’은 이광수가 1931년 6월 26일부터 1932년 4월 3일까지 동아일보에 총 178회에 걸쳐 연재한 장편 역사소설이다. 이광수는 “철갑의 발명자나 임진왜란의 전공자(戰功者)가 아니라 자기희생과 초월예적(超毀譽의 翬방과 칭찬을 뛰어 넘는)이고 끝없는 충성심이 이순신을 숭양하는 이유”라고 하였다. 작가의 상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기록에 기초하여 이순신의 인격과 능력을 소설로 구체화하였다. 일제의 탄압을 피하는 우회적인 항일운동이었던 셈이다.

이보다 앞서 1908년 단재 신채호는 ‘이순신’ 전기(傳記)를 소설과 논설의 면모로 선보였다. 국한문판 원본을 한글로 번역해 한문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까지 포괄하려 했다. ‘수군제일위인이순신(水軍



동아일보의 이광수 작, 소설 ‘이순신’ 표지.  
출처: 한국현대문학대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이미지.

## 社說로 위토 경매 막고 거국적 성금 모아 연재소설 실어 우회적으로 항일운동 지퍼

## 조선일보는 공모곡서 ‘삼백년’ 가사 수난



유달산 ‘목포의 눈물’ 노래비. (목포시청 제공)

第一偉人李舜臣)이란 제목으로, 1908년 5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한매일신보의 국한문판에 연재했다.

목포 유달산에 올라 이순신 장군 동상과 오포대

를 뒤로하고 조금만 올라가면 ‘목포의 눈물’ 노래비가 보인다. 노래비에는 사시사철 이난영(본명 이옥례)의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녹음 장치를 해놓았다. 유달산 기슭에 세워진 이 비는 1969년 6월 10일 목포 악기점을 운영하던 박오주 씨가 기증하여 세워졌고,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 노래비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

1969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 ‘목포의 눈물’ 노래비 세워

1934년 조선일보에서 전국 6대 도시를 대상으로 한 향토노래 공모를 했다. 이때 목포에서 응모한 문일석(본명 윤재희)의 ‘목포의 노래’라는 작품이 전국 신민요가사 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작사를 한 문일석은 일본 와세다대학 출신 20대 무명 시인이었고 도쿄 음악학원을 중퇴한 손목인이 작곡해서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로 탄생했다. 이 노래는 1935년에 발표되어 일제 수탈의 서러움으로 응어리진 2천만 온 겨레의 심금을 울림으로써 가수 이난영을 온 국민의 사랑받는 불멸의 가수로 만들었다. 이 노래는 1936년 일본에서는 ‘와카레노 후나우타(別れの船歌)’라는 제목으로 발매되었고 애상적인 멜로디는 일본인에게도 적지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모두 3절로 된 노랫말의 2절 가사가 총독부 검열에 걸렸다.

삼백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님 자취 완연하다 애달픈 정조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안으니  
님 그려 우는 마음 목포의 노래

여기서 ‘삼백년 원한 품은’이라는 첫 구절은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과 1597년 정유재란 때 일본군과 싸웠던 고사(古事)를 떠올린다. 이 부분이 조선총독부의 검열에 걸리자 ‘삼백년(淵) 원안풍(風)’으로 발음이 비슷하게 들리도록 바꿔 검열을 통과했다. 목포의 고하도는 이순신 장군이 1597년 해남-진도에서 명량해전을 치른 뒤 그해 10월 29일 목포 앞바다 고하도로 삼도수군통제영을 옮겼다. 이곳에서 107일 동안 머무르면서 군사 재편과 전선 건조 및 군량을 비축했다.

‘목포의 눈물’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망향가이자 시름가이며 진혼곡이었다. 종로 거리의 레코드 가게 축음기는 밤낮없이 이 노래를 틀었고, 당시 레코드 가게의 진열장에 써 붙인 가사 앞에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가사를 외우려는 사람들로 연일 북새통이었다. 가수 이난영은 1938년까지 일본에서 활동했는데, 조선 여인의 한을 듬뿍 담은 ‘목포의 눈물’을 일본어로 개사한 엔카 ‘木浦の涙(목포의 눈물)’를 불렀다.

세월이 흘러 2024년 17세의 일본 엔카 가수 아즈마 아키가 MBN의 ‘한일가왕전’에 출연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한국어로 구성지게 불러 한·일 화합의 신박한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

# 고소한 허연 국물에 김 모락모락 한 그릇 똑딱

설  
농  
탕

맛 순례 ⑦



이병대

본회 고문  
전 동아일보·KBS기자  
본회 20, 21대 회장

설렁탕은 한국인이 즐겨찾는 대중 음식이다.

소의 사골 등을 푹고아 골수와 지방이 녹아내린 뽀얀 국물에 양지, 사태 등을 넣어 끓인 것이 설렁탕이다. 맛은 담백하고 고소하며 묵직한 느낌이다. 칼슘과 인, 아연, 콜라겐을 비롯해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약자, 환자에게도 최적의 보양식이다.

“뚝배기에 넘치는 허연 국물이며 파며 / 김이 무럭 무럭 오르는 설렁탕 한 그릇 / 그것이 우리의 힘이었느니라.”(이용악의 설렁탕에서)

일제 강점기 흥선표가 동아일보에 쓴 ‘조선요리’에 따르면 세종대왕때(성종때 기록도 있다) 동대문 밖 제기동 선농단에서 풍년기원 제사를 지내고 왕이 모내기에 나서는 친경 행사가 있는 뒤 행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삶아 끓인 것이 설렁탕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선농단 자리는 해방 후 서울사대와 그 부속 중·고교가 있었다가 현재 백화점이 들어서 있다. 다른 하나는 고려 몽골 지배하에서 먹었던 몽골의 고깃국 ‘술루(Sulu)’가 설렁탕으로 진화했다는 얘기이다.

설렁탕은 소(牛)시장이나 도축장 옆에서 문을 열고 성업했다. 조선조 말과 일제 강점기 서울의 피맛골, 다동과 무교동, 청계천2가 등지에 설렁탕 맛 집이 많았는데 이 부근에 한양의 대표 소시장과 도축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시기에는 소 한 마리 잡으면 살코기는 팔고 뼈, 머리, 내장, 발, 꼬리 같은 부산물은 거의 공짜가



격에 넘겼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부근 설렁탕집들은 값싼 소 부산물을 듬뿍넣고 푹 고아 맛있고 값싸게 팔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았다. 설렁탕은 웅기그릇에 담아내기 때문에 설렁탕집 옆으로 웅기가게가 즐비했다. 서울시가 낸 ‘서울 근현대 음식’에 따르면

작됐다. 나주 영산포는 강 하구에서 34km 올라온 내륙선착장으로 조선시대부터 서해를 오가는 곡식, 수산물, 소금등의 중요 나루터였다.

1900년대 초 영산포 5일장이 공식 개장했는데 소시장과 도축장도 함께 문을 열었다. 역시 도축장 옆에 1910

## 세종대왕 제기동서 모내기 후 선농단서 소 한 마리 통째로 끓여 먹은 게 기원說

## 서울 이문설렁탕·나주 하얀집 등 성업 꼬리·도가니·갈비·선지 등 종류도 다양

갑오경장 다 음해인 1895년 청계천 2가에 신선설렁탕집이 개업했는데 국물이 진하고 짭두기 맛이 좋았다고 한다.

1898년에는 소시장 맞

은편인 수표교 북쪽에 경성옥이 문을 열어食客들이 즐겨 찾았으나 1960년에 문을 닫았다. 이 밖에 광고와 수표교 사이에 광고옥(1902), 지금도 영업중인 이문옥(1904), 해장국과 설렁탕을 팔았던 청진옥(1912), 수표옥(1920), 중림장(1925)등 설렁탕 맛집들이 잇달아 개업을 했다. 한편 나주곰탕 역시 소시장과 연결되어 시



중製罐)가 창업하여 하루 1백마리 이상의 소를 소비하면서 소 부산물이 크게 쏟아져 나와 이 일대에 곰탕골목이 형성되어 지금도 나주 곰탕거리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한편 조선조말 한양의 설렁탕은 새벽 배달음식으로 유명했다. 당시 한양의 양반이나 부유한 상인들은 매일 아침 배달 설렁탕을 먹었다고 한다.

이때 배달음식으로 해장국인 효종갱(曉鐘羹)이 있었는데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일대에서 만들어졌다. 소갈비, 전복, 해삼, 송이, 표고, 배추속내, 콩나물 등에 토장을 풀고 끓여 새벽 파루(罷漏)가 울리면 한양성안에 배달되었다. 배달꾼들은 효종갱을 담은 웅기 항아리를 지게에 지고 남한산성에서 한양까지 약 20km의 밤길을 6시간 걸어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입성했다고 한다. 음식문화는 그 나라 경제환경의 산물이다. 중국은 볶음(炒, 熘)이 주류 요리 방법이고, 일본은 회(膾, 生魚片), 우리나라는 국물 위주의 탕(湯, 羹)이다.

5천년 가난이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지난 날 적은 식재료를 갖고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많이 넣고 우려내는 탕(국)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탕요리가 무척이나 많다. 소와 관련한 탕을 보면 뼈와 살이 재료가 되는 설렁탕, 꼬리곰탕, 족탕, 도가니탕, 살코기의 곰탕, 내장의 내장탕, 갈비를 사용하는 갈비탕, 채소를 넣은 육개장, 소고기국밥(따로국밥), 특수부위의 선지해장국과 우거지 갈비탕 등이 있다. 설렁탕과 곰탕의 차이는 사골 등 뼈를 넣느냐 여부에 따라 갈라진다. 설렁탕의 국물은 뽀얀데 비해 곰탕은 비교적 맑고 진한 황갈색이다. 그런데 요즘은 곰탕에도 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 분류가 어렵다. 곰탕은 옛날 공탕(空湯)으로 불리다가 곰탕으로 진화했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소뼈를 고아 국물을 내면(煮骨取液) 허한 기운을 채우니(補虛損) 약보다 낫다(功效勝藥).”고 했다.

고종은 설렁탕을 냉면만큼이나 좋아했다. “뽀얀 국물에 밥말아 김치 얹어 먹는 맛이 다른 진수성찬보다 낫다.”고 했다고 한다. 이문설렁탕(1902년 창업)집에서 갓다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하동관’곰탕을 좋아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사로 밤잠을 설치면 ‘이문설렁탕’을 애용했다고 한다. 대중음식으로서 설렁탕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었으나 치솟는 물가로 인해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요즘 핵가족시대에 대부분 부부 둘이 산다. 매끼 밥상문제로 특히 고령의 부부사이에 갈등이 심하다. 오죽하면 ‘이식이’ ‘삼식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으랴. 오늘 저녁은 아내와 손잡고 설렁탕 집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ㄹ

필자는 한문서에 초대작가다. 30여 년 방송기자와 16년의 교수를 거치면서 틈틈이 서예공부를 했고 지금도 붓을 놓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심장혈관술로 입원한 아내의 요양병원 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몇 점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 중 한 점에 이렇게 썼다. 만상운집(萬祥雲集) 인애만당(仁愛滿堂), 만 가지 상서로운 운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어질고 사랑이 가득찬 집이라는 뜻이다. 병원으로서는 ‘환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어질고 사랑이 가득 차라’고 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터였다. 병원 원장님은 이 글을 건물입구 중앙과 구내 식당에 걸어주셨다. 아내 병문안을 갈 때마다 이 글들을 보면서 비록 아마추어이지만 서예공부에 매달렸던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어쭙잖은 감회에 젖기도 한다.

필자는 그동안 서예전시회와 출판기념회를 2~3차례 열었다. 그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격려해주셨다. 물론 작품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현직 기자,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바쁘다는 ‘방송기자’가 서예를 한다는 데 대한 일종의 호기심 같은 게 더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나로서는 그렇기에 더 고맙고 소중한 분들이었다. 나는 쓰고, 쓰고, 또 썼다.

작품이랄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글씨들을 주위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법과대학후배들인 몇

## 윤재홍 회우의 서예 예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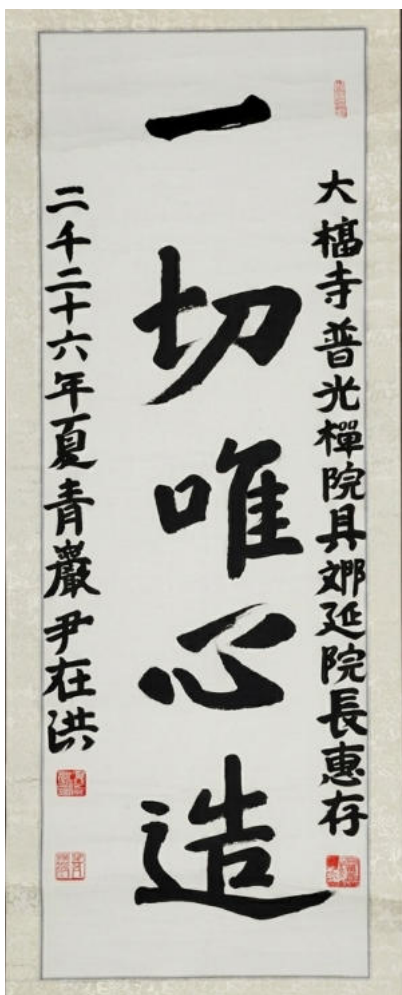
## 白紙에 스미는 黑 필묵의 수양

먹이 들어가면 현묘해지며 붓으로 명언을 쓰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순화되고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예술임을 알게 된다.”

2012년 10월 중국 CCTV 채널4 ‘문화여류’ 토크쇼에서 베이징대학교 교수이며 중국 서법가협회 주석을 지낸 왕약천 교수가 출연했다. 왕 교수는 건강과 장수를 위한 최고의 방편은 서예를 즐기는 것이라고 했다. 왕 교수는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 서동선생과 계공선생이 모두 94세까지 장수했다고 밝혔다. 왕 교수는 중국의 서예가와 승려, 황제의 평균연령을 비교해 설명했다. 서예가의 평균수명은 79.9세, 스님은 66.6세, 역대 황제는 39.2세였다. 서예가가 장수한다는 것은 심리학적,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노후가 시작되는 연령부터 서예공부하기를 적극 권한다. 서예공부는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다. 관할 동사무소를 찾아가 등록만 하면 된다. 서예공부는 1주일에 한 번 수업하고 서예 체본만 받아 나머지는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가정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서예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선협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돕겠다. ㉠

윤재홍(본회 논설위원, 현 가나문화콘텐츠 그룹 부회장, 전 KBS제주방송총국 총국장)



몇 대학총장들과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축하 휘호로 써주었고, 연말 송년모임 때는 졸작이나마 상(賞)으로 내놓기도 했다. 고향인 전남 영암군 향우회는 단골 고객이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한언론인회와 방송기자클럽에도 신년휘호로 실렸다.

필자가 서예에 빠지게 된 데에는 동기가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을 것이다. 당시 초등학교에는 ‘습자’ 수업이 있었다. 화선지가 부족해 대부분 신문에 붓글씨를 쓰던 시절이었다. 담임선생님은 40여명의 학생 가운데 잘 쓴 글씨를 뽑아 게시판에 붙이곤 했다. 나는 한 번도 뽑히지 못했다. 화가 난 나는 방과후 교실에 혼자 남아 뽑힌 친구의 글씨 위에 내 글씨를 붙여놓고 가곤 했다. 이 때 결심했다. 반드시 유명한 서예가가 되겠다고.

필자의 서예공부는 기자생활 틈틈이 시간을 내야했기에 남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 같다. 선생님만 네 분이나 바뀌야 했으니까. 30대

젊은 정치부기자 시절, 대정치가이자 서예의 대가이셨던 당시 민정당대표 청국 윤길중 선생께 기초를 익혔고, 1999년 KBS 여수방송국장 때는 남제 송진석 선생께 지도를 받았다. 국전에 입선한 게 이때였다. 2003년 KBS 제주방송총국장 시절엔 라석 현민식 선생 지도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서예부분에 입선했다. 2004년에는 서예가인 외길 김경호(국가무형문화재) 선생에게 본격적인 서예공부를 했다. 2016년부터 세계문화예술발전중심회장이며 국회사도화 협회 회장인 KBS사우서화위원회 전임 서예교수인 초당 이무호 선생에게 사사했다. 2020년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 초대작가로 선정됐고 현재도 이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원로 서예가들은 서예를 하면 장수한다고 입을 모은다. 초당 선생은 “서예는 정신건강에 매우 좋아 치매를 예방한다.”고 했다. “하얀 화선지는 만물의 바탕인 어머니 역할을 하며 붓은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 흰 화선지에



30대에 본격 붓잡아 윤길중 선생 등 師事...치매 예방 으뜸

##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6.6.24 ~ 2026.7.22>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찬조금

**윤기병 300,000원**

회비

**이종승(입회비, 2026) 330,000원**

송경섭(2025, 2026) 60,000원

유자호(2026) 30,000원

###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이종승 회우

전 동아일보 사진부장

연회비는 회원의  
자존심입니다.

## 회우동정

### 기자의날 기념식 시상자 참여



박기병 본회고문은 지난 6월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의 제 21회 기자의 날 기념식에 시상자로 참여했다.

‘기자의 훈’상은 언론민주화에 기여한 원로 언론인 임재경(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씨가 수상했다. 박기병 고문은 기자협회 제10대, 제17대 회장을 지냈다.

### 서울신문 사우회보 인터뷰기사 소개



함정훈 회우(전 국민일보 부사장)는 서울신문 사우회보 6월 30일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에 대형 인터뷰기사로 소개됐다. 올해 졸수(90세)인 함 회우는 “평생 편집밖에 모르고 살아왔다”는 신문편집의 레전드로 후배들에게 “십자가를 메라”고 말한다. “기사가 아무리 길고 힘(?)해도 제목은 10글자로 승부하라”는 당부다.

함 회우는 아직도 등산과 당구를 즐기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 4·19유공 포상



권기진 회우(전 서울신문 출판편집국장)가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4·19 유공 표창을 받았다.

국가보훈부 서울 남부보훈지청 영정립 지청장은 지난 4월 27일 지청 대회의실에서 권기진 회우에게 4·19 유공포상을 수여했다.

### 경향신문 사우회 회장 재선임



황우연 회우가 지난 6월23일 서대문 영빈루에서 열린 2026 경향신문 사우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임 됐다.

황 회장은 경향신문 수습기자 출신으로 사회부, 정치부, 도쿄특과원을 역임했다.

### 3개국 고려인들의 삶 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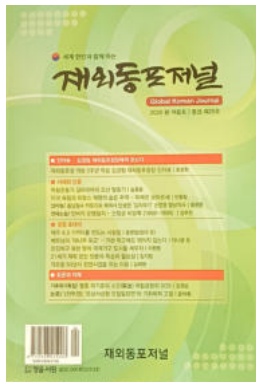
박현수 회우(연합뉴스)는 8월 9일 개최되는 한·중·동아시아 정상회담을 앞두고 7월 3일부터 18일까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3개국 고려인들의 삶과 1937년 강제이주 초기의 정착촌 한인회 한글학교 등을 취재했다.

이어 8월5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방문, 아세안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한국언론인의 이해제고 및 한국언론의 아세안 관련 보도 확대를 위해 취재에 나선다.

## 회우가 낸 새책

### 재외동포저널

2026년 여름호 통권 제25호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인터뷰를 머리기사로 실었다 /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의 조선탈출기 /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의 숨은 주역-피에르 보마르세 / 흥남철수 빅토리오 배에서 탄생한 손양영 함경남도 도지사 / 민비의 운명일지-건천궁 비망록 <칼럼 초대석>제주 4·3 기억터를 만드는 사람들 / 베트남의 ‘대나무’외교-거센 파고에도 꺾이지 않는다 / 한강하구 북한 땅에 국제기구 도시를 세우자 / 21세기 재외한인 언론의 특성과 필요성 / 개포동 50년사 편찬사업을 하는 이유 <논문> 천부경 ‘운삼사성환 오칠일묘연’의 기하학적 고찰 / 재외동포 동향 / 세계한류 한인사회 동향 등을 실었다. 4×6배판 274쪽 정음서원판 값 20,000원.



일생을 남의 사진만 찍던 사람들이 카메라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 보도사진가협회원들 공주 선배농장 ‘우정탐방’

김동준 윤석봉 조명동 이병훈 박교원 강두모 김운찬(이상 대한언론인회 회우), 이의택 강한구 김철호 김주만 김은희 김일현 등 사단법인 한국보도사진가협회(회장 장문기)회원 16명이 지난 6월25일 충남 공주시 신포면 백룡리 이창성(전 중앙일보 사진부장) 선배의 농장을 방문, 선후배의 옛정을 나누었다.

24인승 전세버스로 오전 8시30분 서울 양재동을 출발, 공주 사곡면 솔뚜껍 매운탕 집에서 이창성 선배 내외와 장문기 회장내외의 영접을 받았다.

이창성 선배의 농장에서는 송호창(전 동아일보 사진부장, 대한언론인회 회우)선배가 손수 제작하여 기증

한 빗돌이 눈길을 끌었다. 빗돌엔 이창성 선배의 기자생활 30여년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흐르고 있었다. 손수 농사지는 자두와 복숭아 대접을 받으며 돌아오는 길에 장승마을 구경을 하고 천년고찰 마곡사를 탐방했다. 공주시 유구천에는 때마침 수국 축제장이 열리고 있었다. 하루종일 해도 못다한 이야기, 그냥 헤어지기 서운해 서울에 와서 한잔 더 했다.

<김운찬(전 서울신문 사진부장) 포토 에세이에서>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상완 회우

(전 경향신문 부국장)  
7월4일 별세, 향년 88세.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이정옥 회우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23길 85-36

신동철 회우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121 107동 505호  
(고척 파크 푸르지오)

##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이 종 세
- 사무총장·상임이사 박 종 서
- 주 필 이 도 선
- 편집위원장·이사 이 재 호
- 편집책임 서 이 석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기자의 혼  
꺾이지 않습니다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03호

튼튼하게  
탄탄하게  
돈돈하게

튼튼 탄탄 돈돈 하게  
K스포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K스포츠 컨트롤 타워  
올림픽회관

##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K스포츠 크리에이터

스포츠와 문화, 교육과 산업을 융합한 창의적인 K-스포츠로  
KSPO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스포츠 사업을  
**탄탄하게**



스포츠 재정을  
**돈돈하게**

•스포츠 복지 •스포츠 산업 •올림픽 유산 •체육인재 육성/지원 •기금조성사업 •KSPO스포츠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